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이종휘  
편집주간 최재혁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제작·인쇄 동아P&P Tel.(051)807-0600

방송국 개국, 베이스볼센터 건립, 한마음대축제 등 진행 불 망겨  
재경동창회와 관계 개선·김경진(27회) 동문 복권 등 대화합 추진  
각 지구·지역동창회·직능 단체 집행부 적극 협력의사 잇단 표명

# 경남중고 백년대계 역사의 초석을 다지겠다!

-총동창회 이종휘(32회) 회장 다양한 자리에서 의지를 밝히고 협조를 구하고 있어-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제40대 총동창회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들에 많은 동문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이종휘 총동창회장

평준화세대 모교 첫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이종휘(32회) 회장은 취임사에 밝혔듯이 선배님들이 세운 역사와

전통을 뛰어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본인이 공약한 사항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다. 동문들 간 실시간 소통을 위하여 KN1942방송국 개국, 모교야구부실력향상을 위한 베이스볼센터 건립, 동문한마음가족대축제 행사 실시 등 사업을 이미 시작하였고(관련 기사 2면·5면 참조) 재경동창회와

의 관계 개선, 동창회에서 제명된 김경진(27회)동문의 회원자격을 복권시키는 등 동문 간 대화합의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 또한, 모교100년사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모교의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구상하고도 있다. 제40대 동창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침체된 모교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동문들은 지나치게 개혁적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평준화세대 기수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지구 및 지역동창회는 물론이고 직능 단체의 집행부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이 성공하고 그로 인하여 모교발전은 물론이고 동창회 80년의 역사흐름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총동창회 2023년도 1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개최된 후 참석자들이 동창회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 동문,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정인철(38회) 동문에게 각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33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허범도(22회)고문이 특별히 참석하여 이종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신입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하였고 참석 동문들을 일일이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동창회관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동창회관 1층에서 뷔페식사와 함께 저녁 10시까지 동문들간 정담이 이어졌다.

◇참석자(직책생략) = 강중국 이겸일(이상 16회) 김준연(17회) 서부원(18회) 허범도(22회) 노상우 박극제 박홍규 최동우(이상 24회) 임무홍(25회) 이영학 조만석(이상 26회) 박종기(28회) 기영수 백영태 이병훈 이용길 이종휘 정현상(이상 32회) 김철 최용남(이상 33회) 이용희(34회) 김재성 박동열 박창석 정운성(이상 35회) 양호진 이창 최재혁(이상 36회) 허부남 최기영(이상 37회) 김태호 박이현 신동훈 이수관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이상 38회) 김규웅 정순환 하순호(이상 39회) 안성호(40회) 김영철 전삼록 최영준(이상 41회) 강병규 김대영(이상 43회) 윤상훈(44회) 권우일 조태성(이상 45회) 서승진 이재광(이상 46회) 배준수(47회) 김정현(50회) 김문건 이원준(이상 53회) 고지현 조중완(이상 54회) 이동규(55회).

## 열심히 일하겠다, 순풍에 돛단듯이~

총동창회 2023년 1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종휘총동창회장 협조 요청

총동창회는 2월 27일 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2023년도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감사선출 및 모교사랑기금운용에 관한 건을 처리했다.

모교사랑기금 운용에 관한 건은 기금 모금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기금의 목적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서 상정되었다.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재경동창회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전 동문이 화합하는 총동창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서 박동식(42회·공인회계사) 동문과 박훈식(45회·변호사)동문이 감사로 선출되었고, 모교사랑기금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기금명칭을 '모교 및 총

동창회 사랑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은 ① 모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습도구 및 시설지원 ②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모교100년사 편찬 준비위원으로 위촉된 박종기(28회) 동문, 편집주간으로 위촉된 최재혁(36

# 생동감이 넘치는 사업추진

## 이중휘(32회) 총동창회장,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다

### 모교베이스볼센터 6월 17일 개관 목표로 공사 중

모교운동장 홈의 안전망 뒤쪽에 세워져 있던 허술한 조립식 건물이 야구부 감독실이고 이 건물이 무허가로 세워진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야구부 감독실은 야구부원들의 활동사항을 일일이 기록, 보관하는 곳이고 졸업을 앞둔 선수들의 진학 또는 프로진출을 위한 선수선발을 위해 외부 손님들이 찾아오는 장소이다. 졸업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에 대한 품격있는 접대도 한몫을 할 것이다. 기존의 감독실은 16년 된 조립식 건물로 화재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그동안 모교에서도 이 건물을 제대로 보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제40대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교야구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감독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불연재를 사용한 내화구조로 규모 있게 확장 설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베이스볼센터를 건축하기로 하고 그 기금은 우선 모교 및 동창회 사랑기금에서 시작하고 각 지구, 지역 및 직능단체의 후원을 받기로 하였다. 3월 말 현재 기존건물은 완전히 철거된 상태이다.



기존 야구부 감독실



경남고에 공사 중인 베이스볼센터 조감도



### KN1942 방송국 개국 시연 중

변화하는 시대에 동문들 간 소통을 가장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동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실시간 네트워크 방송체계를 갖추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총동창회는 이미 필요한 예산 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수영구에 있는 스튜디오를 임차하여 취재 및 영상물 제작에 들어갔으며

4월 7일 그 첫 결과물을 내보낼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는 총동창회 3월 소식 이모저모를 시작으로 동문맛집 탐방 '맛 좀 보입시다' 그리고 동문일터탐방 '여서 일합니다'를 내보낼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3시에 업로드해서 주말에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건강프로그램을 론칭하고, 불시에 유튜브 라이브동문회도 시도할 예정이다.(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게 되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하고 있고, 시청은 무료이다.)

### 경남중고 총동창회 한마음 가족대축제 개최 일정 확정 및 준비 돌입

고교 평준화 이후 첫 동창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동문들 간 대화함에 방점을 두고 이 행사가 기획되었고, 6월 17일(토) 오전 10시 모교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동문 및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오전에는 5개 부스의 명랑운동회(최고의 속도를 잡아라, 지압판 멀리뛰기, 다트게임, 컬링 등), 기수별 게임(버블 슈트, 남녀 팔씨름, 단체 줄넘기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청백 두 개 팀으로 나누어 단체게임(박 터트리기, 단체 줄넘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합의 한마당에서는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 및 시상도 실시될 예정이다.

행사개요	
행사명	경남중고 총동창회
성격	체육행사
일시	2023. 6. 17 (토)
장소	모교운동장
주관	경남중고 총동창회
팀구성	2개팀 (청, 백)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가족
행사구성	공식행사 / 오전경기/ 오후경기/ 노래자랑/ 폐회사



야구 게임

개교 81주년  
8.1초를 잡아라

# 집행위원회 부회장단의 일사불란한 동행 젊어진 총동창회, 박진감있게 회무를 집행하겠다

총동창회 회무집행 결의 기구인 집행위원회 부회장단회의가 3월 16일 남천동 '이가한우'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집행위원회는 35회부터 56회까지 각 기수 2명 내외로 위촉된 부회장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19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에 대한 집행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방송국 개국에 관한 건, 경남고 베이스볼센터 건립에 관한 건, 김경진(27회) 동문에 대한 총동창회 회원자격복권에 관한 건, 용마골프대회에 관한 건, 동문한마음가족대축제 행사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토의 끝에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집행위원회의 구성원 기수가 매우 젊어진 것에 대하여 총동창회가 그만큼 젊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회무집행에 따른 집행위원들의 실질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각 안건의 수립과정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하며 집행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안건 외에 재경동창회 정기총회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지고 있는 재경동창회와 화합을 위한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으며, 모교 전체 재학생에게 체육복을 지원한 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총동창회 2023년도 1차 집행위 부회장단회의가 개최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진(44회) KN1942방송국제작국장이 동문한마음가족대축제의 행사진행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고, 최재혁(36회) 편집주간은 고교 평준화 첫 회장으로 선출된 제40대 총동창회 집행부가 선배들에게 뒤지지 않는 동창회를 만드는데 동창회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동창회보의 구독자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집행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이 동창회보 구독자를 늘이는 방법으로 총동창회밴드에 가입인원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동문들의 밴드가입에 집행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3층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4층으로 자리를 옮겨 9시까지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다.

◇참석자 : △총동창회 -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 예동해(32회) 사무총장, 최재혁(36회) 편집주간, 김경곤(38회) 사무국장, 김경진(44회) KN1942제작국장 △집행위부회장 - 박창석 정운성(이상 35회) 허부남(37회) 권두성 신동훈(이상 38회) 박근태 정순환(이상 39회) 배병훈(40회) 전삼록 최영준(이상 41회) 안병규(44회) 조태성(45회) 서승진 이재광(이상 46회) 정신(47회) 정재우(50회) 정유석(51회).

## 힘을 모아 함께 잘해봅시다!

### 용마장학회, 제40대 총동창회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용마장학회 2023년도 이사회가 동창회관에서 개최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마장학회는 2월 16일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건, 상근이사 활동비 지원에 관한 건 등을 처리하였다.

이병찬(23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보통 자산 예금에 대한 금리가 낮아 상근이사의 판공비

를 제대로 지급할 수가 없어 그 부족분을 이사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해 왔는데 최근 금리가 상승하여 이사들 도움 없이 판공비지출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관련 행사에도 일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다행이라며 총동창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총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

획임을 밝혔다. 이사진 변경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언급을 하였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이사들에게 회장취임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총동창회가 용마장학회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동창회 차원에서 장학회 기금의 확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고, 한편 재경동창회와의 관계 개선에 장학회 이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용마장학회는 그동안 총동창회와 상호간 업무협조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총동창회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것을 계기삼아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장학회와 총동창회가 유기적으로 합심하여 후배들에게 더욱 큰 도움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덕담으로 화답하였다. 1시간 여 회의를 진행한 뒤 회의 참석자 전원이 근처 식당으로 옮겨 저녁 9시까지 화기애애한 좌담회를 이어가면서 총동창회 신입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하였다.

◇참석자 : 이병찬(23회) 이사장, 옥동훈(25회) 김현태(30회) 이사, 서민석(30회) 류명석(31회) 감사, 예동해 간사, 이종휘(이상 32회) 총동창회장.

## 대전환을 위한 특별 인터뷰

## 제40대총동창회 집행부에 바란다

평준화세대 첫 총동창회장의 배출로 동문사회도 격변의 시대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최소 15년 이상 오랜 시간 총동창회 집행부 등에 관여하여 총동창회 사정에 밝은 동문들에게 제40대 총동창회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3월 14일부터 2주간 총 6명에게 부탁을 드렸고 그 중 3명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 질의내용

- 1 평준화세대에서 총동창회장이 선출된 데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 2 총동창회가 모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가?, 더불어 총동창회 산하 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총동창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가?
- 3 총동창회집행부에 기수를 뛰어 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총동창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어떤 것이 있는가?
- 4 용마장학회 장학사업과의 관계에서 총동창회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 5 총동창회가 재경동창회와 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가?
- 6 제40대 총동창회 집행부가 공약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총동창회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 7 기타 총동창회에 바라는 사항

## 곽두희(24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장



시의 적절한 세대교체, 장학사업은 다양하게, 모금행위는 그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기부자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기수를 뛰어넘어야 할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이 좋을 듯, 재경동창회의 특징을 잘 살피도록,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하는 것이, 동창회보 구독자를 넓히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

1 32회 이종회회장 취임으로 진정한 동문사회 주류가 시험세대에서 평준화기수세대로 세대교체가 되었음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회장단기수도 이전 어엿한 60대 중반으로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를 넘길 만큼 중후하고 노련한 장년세대이다. 적절한 세대교체이며 평준화세대 후배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2 그동안 모교의 학력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장학사업에 더해 학교발전이나 사회적인 학교 이미지 제고, 동문사회의 각종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직능단체의 모금행위는 정당성을 가지고 그 목적성이 분명해야 하며 기부나 후원의 경우에도 동창회와 함께 모금단체 명의로 지원한다는 일관된 모습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3 어차피 회장기수 배출 시에는 해당동기회와 접촉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불가피하게 건

너뛰어야 할 선배기수에게는 그 동기회 차원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선정해 주어서 동창회 참여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서 소외되거나 거리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용마장학회는 총동창회 조직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다. 장학기금의 대부분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한 재원임으로 총동창회 운영과 방향성을 같이하여 장학사업 일변도에서 범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에서 전반적인 학교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학회를 구성하는 이사진도 동창회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이사회 참석도 잘 안하면서 명 의미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회자하고 있다. 총동창회와의 원활한 방향성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들로 일부 개선해서 이사진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재경동창회는 총동창회 경인지역 동창회이지만 그동안 동창회 전체의 발전과 학교 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재경동창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주류가 시험세대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들은 모두 경로우대세대가 되었다. 따라서 재경동창회를 이제 선배들이 주류로 있는 동창회로 우대하고 존경해주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6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계획이 이벤트성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되었으면 한다. 너무 많은 일을 벌리기 보다는 꼭 필요한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운영하고 유지함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되게 추진함이 좋겠다.

7 회보 구독료 납부인원 4천명 확대 목표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단순한 구독료가 아닌 동창회 참여하는 회비의 성격과 동시에 소통하고 교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동창회 차원에서 젊은 후배기수의 동기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류하면서 참여도를 넓혀가야 하겠다.

## 윤인태(30회) 전 고등법원장

##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전통적인 동창회의 활동과 역할에 다양한 변화를, 기수를 뛰어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를, 용마장학회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재경동창회와의 관계개선은 당연한 것, 모든 사업에는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아픔이 있는 동문들을 잘 끌어안아 달라.

1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동창회의 동질성이 사라졌다고 하여 동창회의 결속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는 다른 동창회와는 달리 평준화세대와 입시세대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입시세대의 총동창회장 시대가 가고 평준화세대의 총동창회장이 탄생하였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빛나는 전통은 계승, 발전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아닌 부분은 부담 없이 개혁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총동창회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이러한 것이 동력이 된다면 우리 총동창회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 과거에는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에 따라 고등학교의 명문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었다. 자연히 학교에서도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총동창회도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준화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일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제 총동창회의 역할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동창회 구성원들의 연대의식을 함양하고, 모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통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 경남중고등학교의 야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기이므로 모금운동 등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선수들이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 모교의 재학생들과 동문들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재학생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모든 기수의 동기회에서 총동창회장을 배출하여 총동창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동기회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동기회에서 총동창회장을 배출하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 동기회에 훌륭한 동문들이 있음에도 이를 건너뛰지 않도록 총동창회에서 미리 미리 발굴하여 총동창회의 임원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총동창회가 충분히 연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총동창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당연히 용마장학회의 장학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용마장학회가 장학금지급, 경남중고야구부지원, 경남중고선배님들에 대한 야구부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총동창회의 활동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면 당연히 장학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총동창회가 본부동창회와 각 지역 동창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부동창회로서는 당연히 각 지역의 동창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모교가 서울지역에 많은 동문들을 배출한 관계로 당연히 재경동창회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총동창회의 발전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다만, 재경동창회로서도 본부동창회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 총동창회가 구상하는 베이스볼센터 건립, 방송국개국 사업, 동문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모두 훌륭한 사업이다. 하지만 무슨 사업이든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구성원들만의 소통이 아니라 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도 의미를 부여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 5면에 넘김>

### 총동창회

# KN1942 이제는 방송국이다

## -전세계 동문들을 실시간 하나로 묶다-

총동창회는 이종휘(32회) 회장의 취임공약에 따라 전세계 동문들의 소통을 실시간 원활하게 하고 동문들 간 유대강화를 위해 방송국개설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급변하는 시대에 동창회보가 동문들 간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소통의 확장을 위하여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국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개국과 운영비용이 부담되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 제40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위 사업을 야심차게 기획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당초 방송국은 상징적으로 동창회관 내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비용의 부담과 동창회관사정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

동에 소재한 방송업체 시설을 우선 임차하여 방송물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특허청에 'KN1942'상표등록도 신청하였다. 방송이후 활성화여부에 따라 추후 독자시설을 갖추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국 개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 회장이 2,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에 화답하여 박종찬(25회) 고문과 김대욱(29회) 고문이 각각 2,000만원 출연을 약속하였고 허부남 집행위 부회장도 2,000만원 출연을 약속했다. 위 기금은 오로지 방송국개설을 목적으로 하여 모교 및 총동창회사랑기금에 입금되어 지출될 예정이다. 현재 KN1942방송국에서 제작하여 방송될 월간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①덕형리그



허슬과 개그사이(시합 중 나이스플레이와 실수를 편집해서 하이라이트방송) ②야구사부(손인호, 이대호, 송승준, 한동희, 최준용등과 함께하는 사회인야구 원포인트레슨) ③라이브쇼펍(동문들의 유통 또는 제조하는 상품을 라이브로 월간판매 방송) ④재학생 슈퍼스타(재학생 상대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우수한 인재발굴육성 프로젝트) ⑤세대 공감 프로그램 ⑥사진으로 보는 인물사(족적을 남기신 선배님들

의 사진으로 한 인물역사 재구성 프로그램) ⑦모교 100년사를 영상으로 만들기 ⑧인물 다큐멘터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성공한 동문들의 인생 일대기를 영상으로 제작) ⑨재학생 콘텐츠 콘테스트(재학생들의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하고 우수 콘텐츠를 전문인들과 함께 제작하여 재학생 조기사업모델 구축) ⑩맛집을 찾아라(동문들의 식당, 커피숍, 카페등을 소개하는 영상 프로그램제작) ⑪야구부의 일상(경남고 야구부의 대회활약상 및 훈련영상 제작방송) ⑫전국 노래자랑(경남중고 총동창회 전 동문들이 참여하는 음악경연 프로그램제작, 방송) ⑬이달의 뉴스(총동창회, 각지구, 각기수, 지역, 직능, 동호단체등의 소식 등을 제작, 방송) 등을 기획하고 있다. 동문이면 누구나 본인업체광고나 다루고 싶은 내용 등을 방송의뢰할 수 있다.

<기사 4면에서 받음>

**7** 몇 년간 동창회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다. 경위가 어떻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동문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제40대 총동창회장은 이러한 동문들의 상처를 모두 치유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평준화 세대가 처음으로 총동창회장에 선출된 만큼 초고속으로 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총동창회에 혁신이 있기를 기대한다.

로서의 역할로 만족해야 한다. 총동창회가 모교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모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진 일이 더러 있었다. 따라서 모교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지양해야 한다. 모교는 독립된 건물이 다른 학교보다 많아 학생 숫자만으로 지원되는 교육청 지원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창회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심히 살피고 모교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부분의 해결을 위해 재경동창회와의 협력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좋겠다.

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한바 있다. 다만 용마장학회와 관련하여 장학회 이사진의 구성을 확대하여 동창회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보이는 젊은 기수들을 대거 동참시켜 좀 더 역동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명석(31회) 용마장학회 감사,  
경남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항상 염두에 둘 것, 모교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자제하고 세심하게 살피며 도울 수 있도록, 기수의 연속성은 중요하며 선후배간 소통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노력, 용마장학회와 힘을 모아 장학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재경동창회와의 관계개선은 당연한 것 지속적인 노력을, 공약사업은 너무 서둘지 말고 필요한 기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전 동문들로부터 각출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총동창회가 되어 달라.

**3** 총동창회장은 기수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집행위 부회장단 구성만 보더라도 33회 34회를 뛰어 넘어 35회가 최고 기수로 참여하고 있어 이미 2개 기수가 빠짐으로 인하여 차후 취임하는 회장의 기수가 계속하여 가파르게 뛰어 넘어갈 우려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총동창회 집행부는 동창회 기수별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겨 32회 이후 기수들 중 연속성이 우려되는 기수들의 발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젊은 기수들의 다양한 활약이 동문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한 현상은 동문사회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나 그 변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선배기수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세대 간 소통의 근간이 위태할 지경으로까지 보인다. 총동창회 집행부는 동창회에 관심이 많은 선배님들 특히 자문위원회와 용마장학회에 소속된 선배님들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하며, 집행위 부회장회의 등에 선배님들의 참관을 요청하는 등 총동창회 집행부의 활동에 선배님들이 참여하여 상호 간 교류될 수 있는 시공간을 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5** 재경과의 관계소원은 사실 있어서는 않되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다 같은 동문이면서 지역에 달리 거주한다고 동문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소원관계가 된 원인부터 그것이 인적이든 물적이든 간에 찾아내서 현 회장단에서 재경과 잘 협의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개선책이라 생각된다. 마침 이종휘회장과 재경동창회장과의 모교개고기념식을 기점으로 서로 화합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 하니 참으로 반갑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연은 혈연보다도 더 진하다고 하는데 상호간 자주 대화하면 해결안될 것이 있겠는가? 재경동창회와의 관계개선이 이종휘회장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동문들도 함께 동참해준다면 좋겠다. 그동안 재경과 총동창회 몇 선배분들의 개인감정으로 흐트러진 총동창회가 이번 기회에 감정의 골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화합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해본다.

**1** 평준화제도가 시행된 지 반세기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경계선을 만들어 의미부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후배 기수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직책을 이어받아 역사의 정통성을 잘 이어가서 후배들 또한 경계선에 기울지 말고 더욱 멋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총동창회 집행부를 맡은 동문들이 인기와 이해관계보다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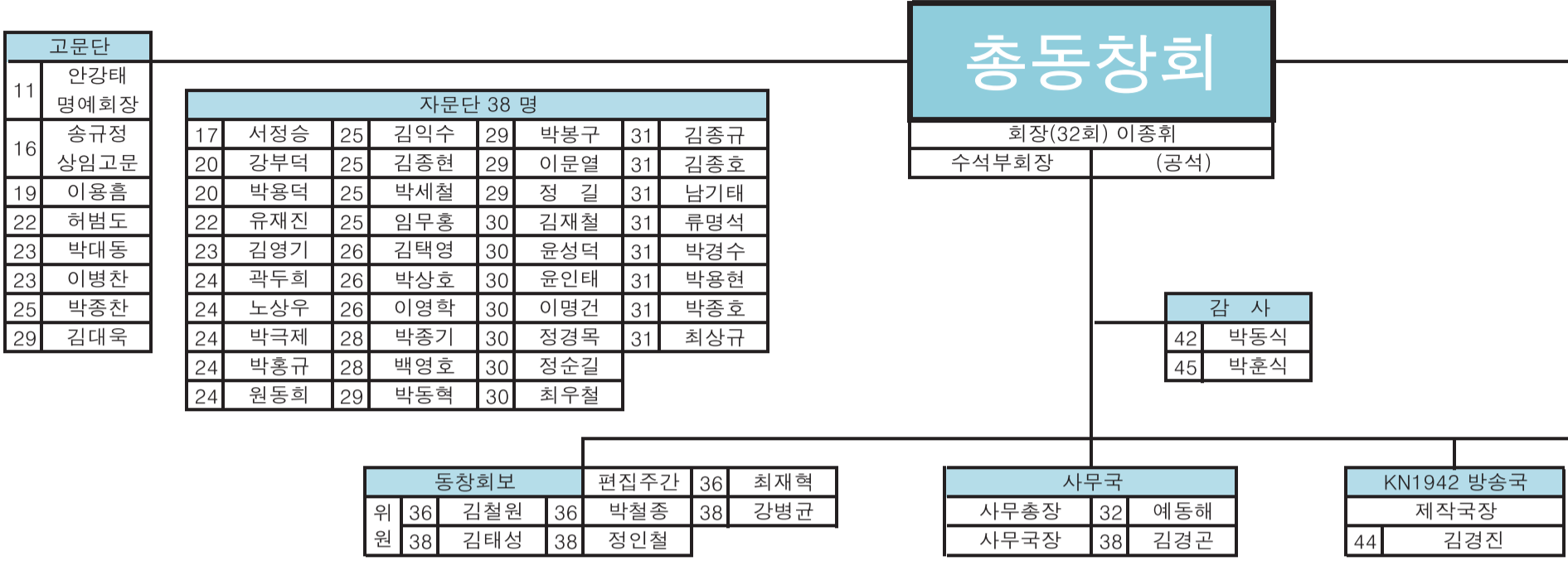
**4** 용마장학회는 총동창회의 왕성한 활동과 관계 없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장학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동창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한 금액에 비해 임대수익이 저조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으나 최근 기본자산의 금융금리가 올라 올해부터는 재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동창회와 용마장학회는 최근에 개최된 용마장학회 이사회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모교 장학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

**6** 이종휘회장의 취임공약이라고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한다. 뜻있는 동문들이 벌써 방송국개국에 관해서는 많은 협찬을 해 주어서 동문으로서 감사드린다. 모든 사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인데 연속적인 사업진행으로 동창회 회장단에서 자금조달에 상당한 고심을 하리라 생각된다. 계속 협찬해주는 동문들에게 연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개인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분들께도 안타까움을 더하니 진행사업에 관해 전 동문들로부터 십시일반 적은 금액 동참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한 재경동창회와도 서로 협의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면 한다.

**2** 총동창회가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모교에 너무 많은 간섭을 배제해야 하며 단지 협력자

**7** 서둘지 말고 천천히 내실을 다지면서 선 후배간의 조화를 잘 맞춰 진행해가면 좋겠다. 앞서 얘기했지만 총동창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미래를 짚어질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인기와 이해관계보다는 앞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동창회를 잘 이끌어 주길 부탁한다.

# 2023 총 동 창



집행위 부회장단 37 명								일반위 부회장단 43 명								운영위원 42 명							
사업1	33	박명진	홍보1	39	박근태	문화2	46	서승진	33	류장근	38	박정민	44	윤상훈	32	곽동훈	32	박진원	32	이병준	32	전성황	
직능1	35	박창석	대외협력1	39	정순환	직능2	46	이재광	33	이동근	38	백두만	44	임정훈	32	기영수	32	백영태	32	이병훈	32	정덕규	
정책1	35	정윤성	지역1	40	배병훈	대외협력2	47	배준수	33	최웅남	38	오희진	45	권우일	32	김동균	32	변문성	32	이상용	32	정영철	
봉사1	36	박진용	조직1	40	우영환	야구2	47	정 신	34	조 선	38	이종명	46	김백권	32	김상권	32	안원철	32	이상현	32	정용운	
직능3	36	양호진	동호1	41	전삼록	재정3	49	정일권	35	김재성	38	주영록	47	김동휘	32	김상범	32	양문성	32	이성훈	32	정현상	
사업2	37	김종휘	봉사2	41	최영준	사업4	50	정재우	35	박동열	39	이철원	48	권유찬	32	김수득	32	엄효선	32	이용길	32	차명훈	
의료1	37	최기영	해외2	42	곽창우	조직2	51	정유석	35	오문세	39	하순호	49	최진영	32	김형국	32	윤병조	32	이재수	32	최규열	
기획1	37	허부남	문화1	42	신봉준	기획3	52	김민철	35	장인화	40	김용철	50	이재등	32	남상원	32	이권택	32	이종선	32	최춘호	
재정1	38	권두성	사업3	43	강병균	홍보2	53	김문건	36	김규선	40	김춘강	51	신현식	32	마승철	32	이득우	32	임영탁	32	팽현준	
의료2	38	서경형	야구1	44	안병규	동호2	54	조중완	36	김정현	41	김영철	52	김현진	32	박성철	32	이명재	32	장기호	32	황원백	
기획2	38	신동훈	재정2	44	탁정환	IT 1	55	박신현	36	이 창	41	이양걸	53	이원준	32	박순환	32	이민재					
해외1	38	정재형	지역2	45	조태성	IT 2	56	장재환	37	유호섭	41	추교용	54	고지현									
정책2	38	조석태							38	김태호	42	김남표	55	이육한									
									38	김현민	43	박형규	56	김대남									
									38	박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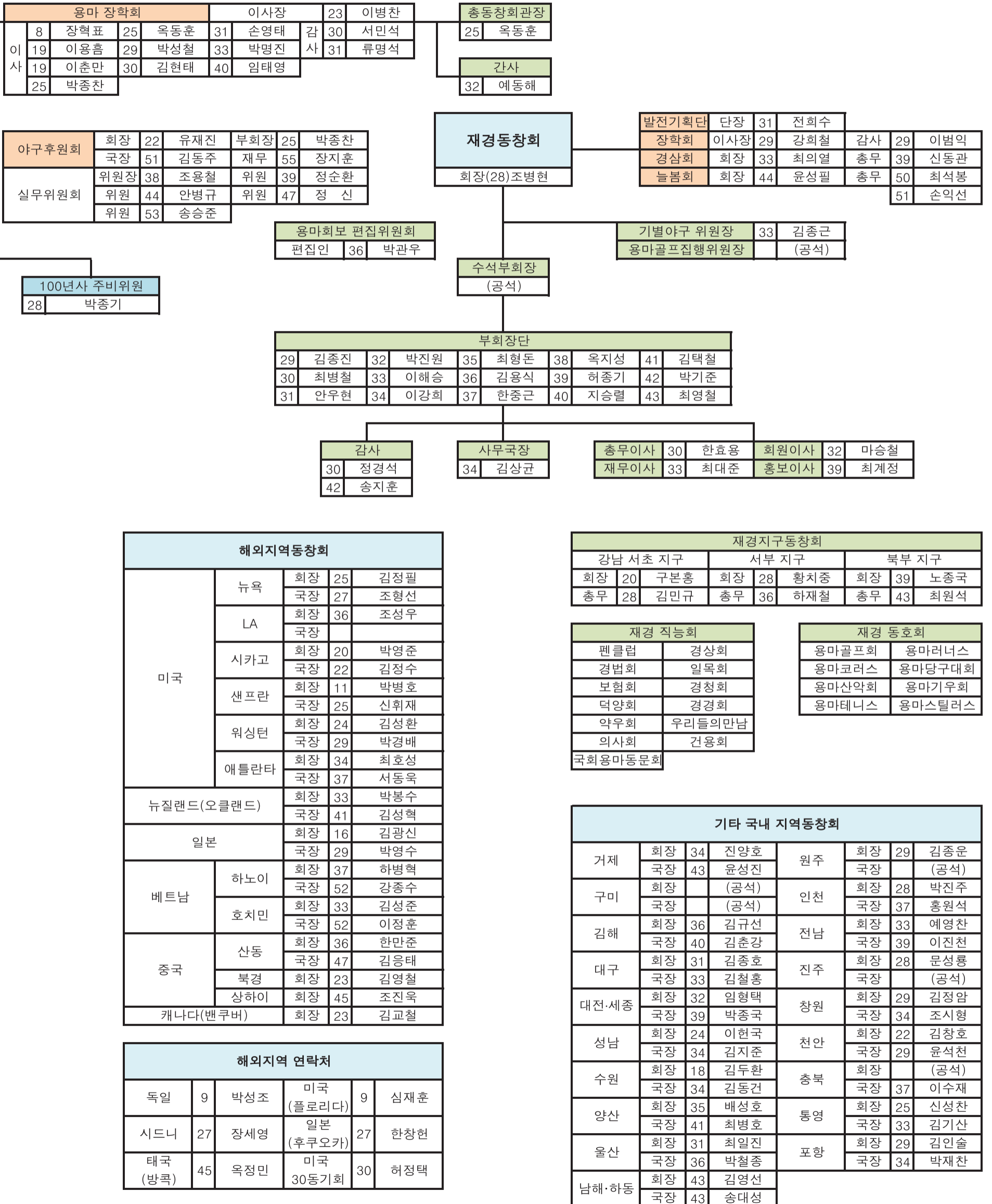
지구 동창회(9개)																	
강서지구	기장지구	남부산지구	동래·금정지구	부산진·연제지구	북부산지구	사하지구	중부산지구	해운대지구									
회장 32	이병훈	회장 34	김철규	회장 40	한수열	회장 32	정용운	회장 33	이윤조	회장 35	박동열	회장 37	허부남	회장 28	박종기	회장 38	김태호
국장 38	이수관	국장 39	여동섭	국장 45	조청래	국장 39	김종엽	국장 39	김병기	국장 44	최현덕	국장 38	신동훈	국장 41	성찬기	국장 50	오유준

기수 동교회															
3회	회 (공석)	14회	회 박한목	25회	회 김종현	36회	회 김용진	47회	회 (공석)						
4회	회 양종학	15회	회 정창환	26회	회 조만석	37회	회 허부남	48회	회 (공석)						
5회	회 상기중	16회	회 강종국	27회	회 김태우	38회	회 조석태	49회	회 정일권						
6회	회 박용진	17회	회 김준연	28회	회 박종기	39회	회 김규웅	50회	회 김정현						
7회	회 김진홍	18회	회 (공석)	29회	회 황유명	40회	회 안성호	51회	회 최우영						
8회	회 조봉석	19회	회 (공석)	30회	회 이명건	41회	회 김영철	52회	회 정상중						
9회	회 한동대	20회	회 장상배	31회	회 박경수	42회	회 곽창우	53회	회 김문건						
10회	회 서정철	21회	회 정영천	32회	회 김상권	43회	회 이진배	54회	회 고지현						
11회	회 이명	22회	회 금명환	33회	회 백홍문	44회	회 윤상훈	55회	회 이육한						
12회	회 하일민	23회	회 김기열	34회	회 이성엽	45회	회 조태성	56회	회 장재환						
13회	회 (공석)	24회	회 최동우	35회	회 정윤성	46회	회 이재광	57회	회						

직능회(10개)		
경미회	회장 43	김대영
	국장 50	서석진
경야회	회장 47	정 신
	국장 62	이재곤
덕경회	회장 25	박종찬
	국장 36	양호진
등대회	회장 35	오문세
	국장 48	강대근
언론인클럽	회장 34	조 선
	국장 36	정윤희
용건회	회장 32	정현상
	국장 49	이충현
용경회	회장 (공석)	
	국장 51	도희종
용마세우회	회장 41	이형석
	국장 52	이도경
부산시 용마회	회장 38	이봉걸
	국장 43	김종식
K-청마회	회장 51	정유석
	국장 53	김문건

동호회(10개)		
경불회	회장 21	정영천
	국장 28	서정환
기독교동문회	회장 31	정원규
	국장 33	김대현
덕형리그	회장 36	양호진
	국장 41	강 훈
용마골프회	회장 38	한민득
	국장 42	김현오
용마당구회	회장 25	장세훈
	국장 34	류승민
용마바둑회	회장 29	김대욱
	국장 40	고승성
용마산악회	회장 35	서석권
	국장 41	이종민
용마코스	단장 35	손수범
	국장 42	신봉준
용마테니스회	회장 35	박창석
	국장 40	최하용
KN1942 야구단	단장 40	우영환
	국장 50	김정현

# 회 조직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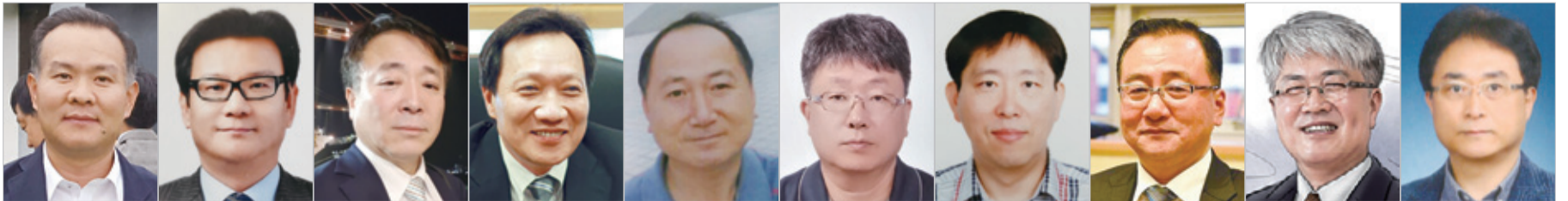


# 2023 총동창회 임원진

<b>총동창회</b>									
	회장 이중휘(32회)	감사 박동식(42회)	고문/ 명예회장 안강태(11회)	상임고문 송규정(16회)	고문 이용흠(19회)	고문 허범도(22회)	고문 박대동(23회)	고문 이병찬(23회)	
									
	고문 박찬안(25회)	고문 김대욱(29회)	자문위원 서정승(17회)	자문위원 강부덕(20회)	자문위원 박용덕(20회)	자문위원 유재건(22회)	자문위원 김영기(23회)	자문위원 곽두희(24회)	자문위원 노상우(24회)
									
	자문위원 박규(24회)	자문위원 원동욱(24회)	자문위원 김익수(25회)	자문위원 김종현(25회)	자문위원 박세철(25회)	자문위원 임무홍(25회)	자문위원 김택영(26회)	자문위원 박상호(26회)	자문위원 이영학(26회)
									
	자문위원 백영호(28회)	자문위원 박동혁(29회)	자문위원 박종구(29회)	자문위원 이문열(29회)	자문위원 정 길(29회)	자문위원 김재철(30회)	자문위원 윤성덕(30회)	자문위원 윤인태(30회)	자문위원 이명건(30회)
									
	자문위원 최우철(30회)	자문위원 김중규(31회)	자문위원 김종호(31회)	자문위원 류명석(31회)	자문위원 박경수(31회)	집행위 부회장 박명진(33회)	집행위 부회장 정윤성(35회)	집행위 부회장 박진용(36회)	집행위 부회장 양호진(36회)
									
집행위 부회장 허부남(37회)	집행위 부회장 권두성(38회)	집행위 부회장 서경형(38회)	집행위 부회장 신동훈(38회)	집행위 부회장 정재형(38회)	집행위 부회장 조석태(38회)	집행위 부회장 박근태(39회)	집행위 부회장 정순환(39회)	집행위 부회장 배병훈(40회)	
									
집행위 부회장 전삼복(41회)	집행위 부회장 최영준(41회)	집행위 부회장 곽창우(42회)	집행위 부회장 신봉준(42회)	집행위 부회장 강병규(43회)	집행위 부회장 안병규(44회)	집행위 부회장 탁경환(44회)	집행위 부회장 조태성(45회)	집행위 부회장 서승진(46회)	
									
집행위 부회장 정 신(47회)	집행위 부회장 정일권(49회)	집행위 부회장 정재우(50회)	집행위 부회장 정유석(51회)	집행위 부회장 김민철(52회)	집행위 부회장 김문진(53회)	집행위 부회장 조종원(54회)	집행위 부회장 장재환(56회)	운영위 부회장 기영수(32회)	
									
운영위 부회장 엄효선(32회)	운영위 부회장 윤병조(32회)	운영위 부회장 이득우(32회)	운영위 부회장 이병훈(32회)	운영위 부회장 이용길(32회)	운영위 부회장 정덕규(32회)	운영위 부회장 정용운(32회)	일반위 부회장 류장근(33회)	일반위 부회장 이동근(33회)	
									
일반위 부회장 (33회)최웅남									



# 2023 총동창회 임원진



일반위 부회장 조 선(34회) 일반위 부회장 박동열(35회) 일반위 부회장 오문세(35회) 일반위 부회장 장인화(35회) 일반위 부회장 김규선(36회) 일반위 부회장 이 창(36회) 일반위 부회장 유호섭(37회) 일반위 부회장 김태호(38회) 일반위 부회장 김현민(38회) 일반위 부회장 박이현(38회)



일반위 부회장 박경민(38회) 일반위 부회장 주영록(38회) 일반위 부회장 하순호(39회) 일반위 부회장 김춘화(40회) 일반위 부회장 김영철(41회) 일반위 부회장 이양걸(41회) 일반위 부회장 박형규(43회) 일반위 부회장 윤상훈(44회) 일반위 부회장 임정훈(44회) 일반위 부회장 권우일(45회)



일반위 부회장 김백권(46회) 일반위 부회장 김동휘(47회) 일반위 부회장 권우찬(48회) 일반위 부회장 최진영(49회) 일반위 부회장 이재등(50회) 일반위 부회장 신현식(51회) 일반위 부회장 김현진(52회) 일반위 부회장 이원준(53회) 일반위 부회장 고지현(54회) 일반위 부회장 이욱한(55회)



일반위 부회장 김대남(56회) 편집주간 최재혁(36회) 편집위원 김철원(36회) 편집위원 박철중(36회) 편집위원 강병균(38회) 편집위원 김태성(38회) 편집위원 정인철(38회) 지구동창회 강서지구 회장 이병훈(32회) 강서지구 사무국장 이수관(38회)



기장지구 회장 김철규(34회) 기장지구 사무국장 여동섭(39회) 남부산지구 회장 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 사무국장 조청래(45회) 동래금정지구 회장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사무국장 김중엽(39회) 부산전면제지구 회장 이준조(33회) 부산전면제지구 사무국장 김병기(39회) 북부산지구 회장 박동열(35회) 북부산지구 사무국장 최현덕(44회)



사하지구 회장 허부남(37회) 사하지구 사무국장 신동훈(38회) 중부산지구 회장 박종기(28회) 중부산지구 사무국장 성찬기(41회) 해운대지구 회장 김태호(38회) 해운대지구 사무국장 오유준(50회) 지역동창회 김해지역 회장 김규선(36회) 김해지역 사무국장 김춘강(40회) 대구지역 회장 김종호(3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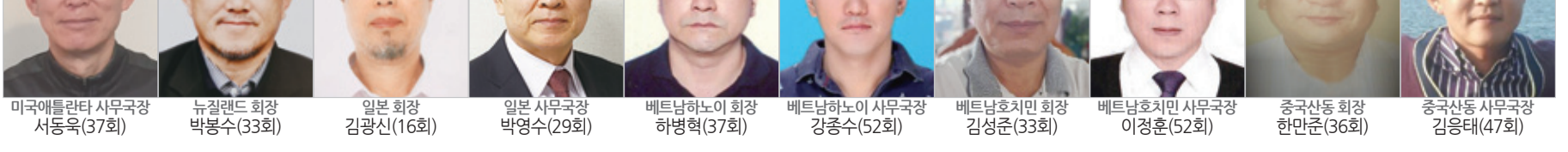
대구지역 사무국장 김철홍(33회) 대전제충지역 사무국장 박종국(39회) 수원지역 회장 김두환(18회) 양산지역 회장 배성호(35회) 양산지역 사무국장 최병호(41회) 울산지역 사무국장 박철중(36회) 재경지역 회장 조병현(28회) 재경지역 사무총장 김상균(34회) 진주지역 회장 문성룡(28회) 창원지역 회장 김경암(29회)



창원지역 사무국장 조시형(34회) 통영지역 회장 신성찬(25회) 통영지역 사무국장 김기산(33회) 포항지역 회장 김인술(29회) 포항지역 사무국장 박재찬(34회) 해외지역 동창회 미국뉴욕 회장 김경필(25회) 미국뉴욕 사무국장 조형선(27회) 미국LA 회장 조성우(36회) 미국애틀랜타 회장 최호성(34회)
























미국애틀랜타 사무국장 서동욱(37회) 뉴질랜드 회장 박봉수(33회) 일본 회장 김광신(16회) 일본 사무국장 박영수(29회) 베트남하노이 회장 하병혁(37회) 베트남하노이 사무국장 강중수(52회) 베트남호치민 회장 김성준(33회) 베트남호치민 사무국장 이정훈(52회) 중국산둥 회장 한만준(36회) 중국산둥 사무국장 김응태(47회)



미국애틀랜타 사무국장 서동욱(37회) 뉴질랜드 회장 박봉수(33회) 일본 회장 김광신(16회) 일본 사무국장 박영수(29회) 베트남하노이 회장 하병혁(37회) 베트남하노이 사무국장 강중수(52회) 베트남호치민 회장 김성준(33회) 베트남호치민 사무국장 이정훈(52회) 중국산둥 회장 한만준(36회) 중국산둥 사무국장 김응태(47회)

# 2023 총동창회 임원진

 중국상하이 회장 조진욱(45회)	<b>직능회</b>	 경미회 회장 김대영(43회)	 경미회 사무국장 서석진(50회)	 경야회 회장 정 신(47회)	 경야회 사무국장 이재곤(62회)	 덕경회 회장 박종찬(25회)	 덕경회 사무국장 양호진(36회)	 등대회 회장 오문세(35회)	 등대회 사무국장 강대곤(48회)
 언론인클럽 회장 조 선(34회)	 언론인클럽 사무국장 정윤호(36회)	 용건회 사무국장 이충현(49회)	 용마세우회 회장 이형석(41회)	 용마세우회 사무국장 이도경(52회)	 부산시용마회 회장 이봉걸(38회)	 부산시 용마회 사무국장 김종식(43회)	 K-청마회 회장 정유석(51회)	 K-청마회 사무국장 김문건(53회)	<b>동호회</b>
 경분회 회장 정명천(21회)	 경분회 사무국장 서정환(28회)	 기독교문화회 회장 정원규(31회)	 기독교문화회 사무국장 김대현(33회)	 덕형리그 회장 양호진(36회)	 덕형리그 사무국장 강 훈(41회)	 용마골프회 회장 한민득(38회)	 용마골프회 사무국장 김현오(42회)	 용마당구회 회장 장세훈(25회)	 용마당구회 사무국장 류승민(34회)
 용마바둑회 회장 김대욱(29회)	 용마바둑회 사무국장 고승성(40회)	 용마산악회 회장 서석권(35회)	 용마산악회 사무국장 이중민(41회)	 용마코스 단장 손수범(35회)	 용마코스 사무국장 신봉곤(42회)	 용마테니스회 회장 박창석(35회)	 용마테니스회 사무국장 최하용(40회)	 KN1942야구단 단장 우영환(40회)	 KN야구단 사무국장 김경현(50회)
<b>장학회</b>	 장학회 이사장 이병찬(23회)	 장학회 이사 장혁표(8회)	 장학회 이사 이용홀(19회)	 장학회 이사 박종찬(25회)	 장학회 이사 옥동훈(25회)	 장학회 이사 박성철(29회)	 장학회 이사 김현태(30회)	 장학회 이사 손영태(31회)	 장학회 이사 박명진(33회)
 장학회 이사 임태영(40회)	 장학회 감사 서민석(30회)	 장학회 감사 류명석(31회)	<b>동기회장</b>	 양중학(4회)	 상기중(5회)	 박웅진(6회)	 김진홍(7회)	 조봉석(8회)	 한동대(9회)
 서경철(10회)	 이 명(11회)	 하일민(12회)	 박현목(14회)	 강중국(16회)	 김준연(17회)	 정명천(21회)	 김명환(22회)	 김기열(23회)	 최동우(24회)
 김중현(25회)	 조만석(26회)	 김태우(27회)	 박종기(28회)	 이명건(30회)	 박경수(31회)	 백훈순(33회)	 이성엽(34회)	 정운성(35회)	 김용진(36회)
 허부남(37회)	 조석태(38회)	 김규웅(39회)	 안성호(40회)	 김영철(41회)	 곽창우(42회)	 이진배(43회)	 윤상훈(44회)	 조태성(45회)	 이재관(46회)

## 2023 총동창회 임원진










 정일권(49회)	 김경현(50회)	 최우영(51회)	 정상중(52회)	 김문건(53회)	 고지현(54)	 이옥한(55회)	 장재환(56회)	<b>동기국장</b>		 신현익(3회)	
 강창수(12회)	 장영길(13회)	 신경아(17회)	 오무영(18회)	 김규하(19회)	 김세준(20회)	 이재화(21회)	 김상영(23회)	 김인구(24회)	 여성조(25회)		
 최인수(26회)	 백민호(27회)	 우홍제(30회)	 김판덕(31회)	 이웅길(32회)	 김상욱(33회)	 옥재명(34회)	 김세정(35회)	 이학수(36회)	 윤태현(37회)		
 구동주(38회)	 김종엽(39회)	 이태근(40회)	 김신욱(41회)	 정홍준(42회)	 박승삼(43회)	 한수성(44회)	 서승진(46회)	 성상용(47회)	 신종국(49회)		
 신현식(51회)	 김성화(52회)	 하병오(53회)	 이재진(54회)	 황시우(55회)	 이승민(56회)	<b>야구후원회</b>		 야구후원회 회장 유재진(22회)	 야구후원회 부회장 박종찬(25회)	 야구후원회 사무국장 김동주 (51회)	
<b>100년사 주비위원</b>		 100년사 주비위원 박종기(28회)	<b>KN방송국</b>		 제작국장 정국진 (44회)	<b>사무국</b>		 사무총장 예동해(32)	 사무국장 김경곤(38회)	<b>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b> - 임원진 일동 -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 같이 닳리고 닳려~**

# STEEL CASTING

**산업기계, 선박, 방산, 자동차 부품 소재 생산전문**



- ISO 9001, ISO 14001, OHSAS18001, CE PED, API 인증 기질경영시스템 인증보유
- 뿌리기술 전문기업, Inno-Biz, 벤처기업 인증 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품질관리 인증보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해외선급 (LR, DNVGL, ABS, KR, BV, CCS, RS, RINA, NK, CE, API) 인증보유

ISO 9001 : 2015  
 ISO 14001 : 2015  
 OHSAS 18001 : 2007

**본사 및 공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17로 78번길 16 (송정동)  
 Tel . (051)714-2521, (055)544-2306  
 Fax. (051)714-2564, (055)544-2308

E-mail. kumhwasteel@hanmail.net  
 Website. <http://www.kumhwasteel.com>

**S·TH**  
 KUM HAW  
 STEEL

**회장 허부남 (37회)**

# 기부자 리스트

##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9	김 대 욱	5억3500만원

루비	3억원이상	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사파이어	2억원이상	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5	박 종 찬	2억6140만원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300만원
3	25	김 진 철	1억15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12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400만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3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경	57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625만원
7	24	박 홍 규	5000만원
8	24	전 용 우	5000만원
9	26	박 상 호	6750만원
10	30	김 현 태	5470만원
11	30	윤 성 덕	6450만원
12	37	허 부 남	5750만원
13	38	권 두 성	735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2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미)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중 원	3000만원
4	19	이 용 흥	4150만원
5	20	박 용 덕	332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7	박 치 호	4000만원
10	28	백 영 호	3350만원
11	29	박 성 철	3500만원
12	31	박 중 호	3550만원
13	31	홍 성 수	3370만원
14	32	이 종 휘	2310만원
15	33	김 범 영	4430만원
16	35	장 인 화	3400만원
17	36	박 진 용	3250만원
18	38	정 재 형	3140만원
19	39	박 근 태	3270만원
20	40	우 영 환	4100만원
21	44	탁 정 환	3530만원
22	47	정 신	369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8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9	17	이 세 복	1000만원
10	17	최 성 호	1000만원
11	19	황 태 원	1000만원
12	20	김 형 오	1000만원
13	20	허 규 판	1000만원
14	21	강 창 수	1730만원
15	21	전 재 호	1000만원
16	22	김 학 균	1000만원
17	22	박 재 상	2000만원
18	22	장 성 덕	1000만원
19	22	장 성 복	1000만원
20	22	허 범 도	1000만원
21	28	노 영 현	1500만원
22	30	정 경 목	1000만원
23	33	이 순 환	1000만원
24	33	최 응 남	2260만원
25	34	박 철 응	1070만원
26	34	이 진 호	2130만원
27	41	이 양 길	1000만원
28	55	전 민 기	8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8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2	이 재 원	1000만원
6	15	손 부 흥	1630만원
7	15	천 신 일	2430만원
8	15	한 해 수	10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3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1	23	이 상 수	770만원
12	25	김 익 수	950만원
13	25	박 세 철	630만원
14	25	손 기 천	550만원
15	25	송 정 규	580만원
16	25	이 명 철	710만원
17	26	김 상 현	500만원
18	26	박 재 욱	500만원
19	26	박 효 대	500만원
20	26	하 원 구	500만원
21	27	김 태 우	550만원
22	27	문 두 찬	630만원
23	28	구 영 소	500만원
24	28	이 원 철	950만원
25	28	최 강 호	500만원
26	29	이 석 조	600만원
27	30	김 해 곤	700만원
28	30	윤 인 태	630만원
29	30	이 명 건	530만원
30	30	이 학 수	700만원
31	30	허정택(미)	615만원
32	31	남 기 태	710만원
33	31	류 명 석	780만원
34	31	오 민 일	650만원
35	31	이 병 태	650만원
36	31	정 철 수	510만원
37	34	이 재 완	550만원
38	39	백 기 현	890만원
39	41	김 정 태	510만원
40	41	최 영 준	540만원
41	44	안 병 규	780만원
42	45	조 태 성	500만원
43	64	표 종 빈	5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3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7	김 삼 현	500만원
2	8	김 봉 길	500만원
3	17	김 동 수	500만원
4	17	윤 성 욱	500만원
5	17	조 증 언	500만원
6	19	김 봉 호	600만원
7	19	장 흥 의	600만원
8	20	김 태 영	500만원
9	20	박 병 철	500만원
10	23	이 병 찬	550만원

## 모교 및 총동창회사랑기금 기부자 참여현황

(단위: 만원, 2023년 3월 27일 작성)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단체
5회 5 상기중 250 김영한 김병무 진도영 임성업	28회 8 노영현 100 박성권 20 박종기 100 백영호 100 엄재홍 100 이원철 50 임재덕 50 한명재 100	38회 3 김태호 30 김연규 30 박이현 100	52회 1 김현진 10	강서지구동창회 100
6회 1 오영은 100	29회 7 김대욱 46,000 김영찬 100 김종명 100 이문열 200 이선호 100 차의수 100 현응열 100	39회 4 백기현 50 윤원욱 100 정순환 100	53회 1 김문건 30	경미회 860
7회 1 김상현 500	30회 1 김현태 2,000	40회 1 한수열 100	54회 5 고지현 10 김영빈 10 임길환 10 정준섭 30 조중완 100	경미회 대외협력분과 30 경미회 문화체육분과 30 경미회 미래발전분과 80 경미회 사회공헌분과 150 경미회 친목교류분과 30
12회 3 배중섭 30 이재원 1,000 조한기 3	31회 1 김종규 31	41회 6 김영철 100 김인수 100 김정태 410 이양길 200 최영준 410	55회 2 이욱한 10 전민기 1,000	경야회 50 김해지역동창회 80
13회 1 김성훈 10	32회 1 이중휘 3,000	42회 1 정용중 30	56회 1 류은재 20	남부산지구동창회 100
15회 1 손부흥 100	33회 6 김기산 30 김윤성 50 백수현 50 이동근 100 이형근 40 최응남 1,100	43회 1 김민석 10	58회 3 김현운 10 오응경 20 주재형 10	대구지역동창회 100
17회 2 이수창 200 장호남 100	34회 2 이진호 800 박철웅 550	43회 1 김진수 20	74회 1 최준용 10	덕행리그 300
18회 1 허영일 30	35회 1 류인수 30 박동열 30	44회 2 배봉건 30 전광열 50 권우일 30	80회 1 신예준 10	동래금정지구동창회 100
21회 1 강수경 16	36회 2 정윤희 30 최재혁 30	45회 3 박현승 20 조태성 450	경남중고 운영위원장 1 한미숙 (경남중고학년 간계승) 100	미술작가 작품 판매 수익 기부금 230 (30박홍식/38박규열/41길한/41여근섭)
23회 1 김성태 100	37회 2 이수환 30 허부남 2,000	46회 1 정수찬 20	8회 1 익명 20	삼사공사 20 (13배대결/13윤기갑/14김화옥/24김인구)
24회 4 곽두희 100 노상우 50 임만호 50 전용우 5,000 곽동원 50 김옥철 30 김중현 100	38회 1 김현태 2,000	47회 3 김기환 45 정신 300 하중건 10	59회 1 김충호 30	생우회(경남) 생물만 OB) 100
25회 8 김진철 5,000 박종찬 12,000 오양득 30 옥동훈 20 정철수 100	39회 1 김현태 2,000	48회 2 김주현 30 김춘호 30	60회 1 김민철 100	신용회 50 용건회 50
26회 1 박상호 1,000	40회 1 한수열 100	50회 1 정재우 100	61회 1 김상곤 10	재에틀러타동문회 100
27회 1 이요섭 100	41회 6 김영철 100 김인수 100 김정태 410 이양길 200 최영준 410	52회 3 강영철 10 김민철 100 김상곤 10	7회 동기회 300	주경야독회원일동 50
28회 1 김용진 50	42회 1 정용중 30	53회 1 정재우 100	36회 동기회 500	중부산지구동창회 100

단체	단체	단체	단체
54회 5 정준섭 30 조중완 100	55회 2 이욱한 10 전민기 1,000	56회 1 류은재 20	58회 3 김현운 10 오응경 20 주재형 10
74회 1 최준용 10	80회 1 신예준 10	8회 1 익명 20	9회 1 한미숙 (경남중고학년 간계승) 100
김해지역동창회 80	남부산지구동창회 100	대구지역동창회 100	덕행리그 300
동래금정지구동창회 100	미술작가 작품 판매 수익 기부금 230 (30박홍식/38박규열/41길한/41여근섭)	삼사공사 20 (13배대결/13윤기갑/14김화옥/24김인구)	생우회(경남) 생물만 OB) 100
신용회 50	용건회 50	재에틀러타동문회 100	주경야독회원일동 50
중부산지구동창회 100	창원지역동창회 100	통영지역동창회 100	해운대지구동창회 100
단체 합계 3,010	전체 합계 92,757	동창회보투고환영	문의 - 총동창회 사무국 T. 051-253-7788

모교사랑기금 계좌 안내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101-2083-2443-05 경남중고 총동창회 이종휘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재단)용마장학회 이병찬

총동창회는 동문들이 출연하는 모교 및 동창회 사랑기금과 각종후원금, 동창회비에 해당하는 동창회보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동창회 집행부 일동-

# 지구회장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 지구동창회의 협조가 없이는 총동창회가 잘 될 수가 없어

총동창회 주관으로 지구동창회 회장들이 2월 15일 동창회관 5층에서 모임을 가지고 지구동창회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 지구간 교류 및 지구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각 지구동창회의 열악한 재정문제가 가장 첨예한 해결과제로 거론



지구동창회장들이 2월 15일 동창회관에 모여 2023년도 상견례를 하고 있다.

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강서지구가 상당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서지구의 기금조성 비결은 회장단 및 고문단, 다수의 진성회원으로 구분하여 년회비를 정기적으로 각출하고 여기에 특별 찬조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다른 지구동창회의 부러움을 샀다. 사하지구도 허부남(37회) 회장으로 교체된 후 기금조성

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연제 지구와 북부산지구는 회기금은 물론이고 회원확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진성회원을 위주로 한 조직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지구소식을 알렸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지구동창회의 협조없이는 총동창회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구행사는 지구동문들을 중심으로 지구

여건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고 대외적인 공지와 초청은 총동창회밴드만 활용하는 것(타 지구 동창회밴드는 자체하는 것)으로, 행사 시 참여자의 전에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주문을 하였는데, 참여자들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였다. 지난해까지 지구동창회장단모임은 모임을 주최하는 쪽에서 고문단 및 집행부 전원이 참석하는 규

모로 진행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현회장들만 참석하는 쪽으로 정하였고 지구동창회간 회장단 초청 및 방문교류는 각 지구동창회 정기총회 시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리고 지구동창회장단연합회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박종기(28) 중부산지구 회장이 위 모임의 회장을, 박동열(35) 북부산지구 회장이 총무를 맡기로 하였고, 모임은 6시 30분 시작하여 7시 15분경 종료하였으며 이어 구포집(22회 운영)으로 옮겨 9시까지 식사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었다.

◇참석자 =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최재혁(36회) 총동창회 편집주간,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임무홍(25회) 중부산지구 고문, 박종기(28회) 중부산지구 회장, 김종규(31회) 강서지구 고문, 이병훈 강서지구 회장, 정용운(이상 32회) 동래금정지구 회장, 이운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 회장, 박동열(35회) 북부산지구 회장, 김태호 해운대지구 회장, 이수관(이상 38회) 강서지구 사무국장, 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 회장.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강서지구 동창회는 바깥입니다

## 2월 월례회 및 가족어울림행사 개최

이병훈(32회) 강서지구 회장 취임 후 첫 공식행사인 2월 월례회가 2월 2일 국제신도시 맛나감자탕에서 열렸다.

이 회장은 동문들의 유대강화를 위해 월례회를 2개월에 한번 씩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고, 주기적인 등산모임, 풋살동호회 등 친목모임도 활성화 할 것을 공약한바 있다.



강서지구동창회가 4월 2일 가족어울림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강서지구에서 공식 후원하는 강서리틀야구단(감독 이정우 51회)에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강서리틀야구단은 강서지구의 후원에 힘입어 지난해 2번의 우승실적을 올렸었다. 전달된 금일봉은 김택영(26회)동문을 포함한 백영호, 조광제, 예영일, 김상윤, 김종규, 이병훈, 김창범, 이수관동

문 9명이 각출하여 조성하였다. 박종기(28회) 중부산지구회장이 참석하여 행사 금일봉을 찬조하였고, 정식 행사 후 최 현(44회)동문이 후배 10여명을 데리고 2차 자리를 만들어 우의를 다졌다.  
◇참석자(직책생략) = 김택영 성재업(이상 26회) 김상윤 박종기 백영호 예

영일 조광제(이상 28회) 이병훈 이환용(이상 32회) 김재성(35회) 정재형(38회) 김성준 최 현(이상 44회) 김백권 이재광 정병노(이상 46회) 구민수(50회) 김민철(52회) 우재준(53회) 고지현(54회) 김덕형(66회).  
또한, 강서지구동창회는 지난 4월 2일 금정구 회원수원지일대에서 가

족어울림행사를 개최하였다.

오전 9시 강서구 집결, 관광버스로 함께 회동수원지 소재 하동집으로 이동 10시 30분부터 부영산(175m) 장미산(80m)으로 2시간여 트레킹을 하였으며 다시 하동집으로 돌아와 식사와 족구대회, 윷놀이대회, 제기차기대회 등을 하고 관광버스로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화창한 날씨에 가족모두가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이병훈(32회)회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강서지구 산행대장인 최주홍(31회) 동문이 기획하고 집행하였다.

◇참석자 = 예영일(28회) 조광제(28회)부부 최주홍(31회) 김창범(32회)부부 이병훈(32회) 김재성(35회) 이수관(38회)부부 김성준(44회)부부 박진수 이준호 조태성(이상 45회) 김백원(46회)가족4 이진행(46회)부부 정병노(46회)가족3 윤호재(49회)가족3 정우영(51회)가족3 정상중(52회) 우재준(53회)가족4 김덕형(66회)  
◇찬조 = 진도영(5회) 상품권10만원, 백영호(28회) 영양제 15만원, 이병훈(32회) 상품권 10만원, 김재성(35회) 상품권 15만원.

# 탄생 5년, 도약하는 지구동창회로 발돋움할 때

## 북부산지구동창회 2023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북부산지구동창회는 2월 7일 덕천동에 있는 구룡성 식당에서 5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박창제(35회) 북부산지구 회장은 북부산지구 탄생 이래 가장 많은 동문이 참석하였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토끼해의 다산의 의미에 따라 북부산 동창회의 구성원이 계속하여 대거 확충되어 총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최동원 선수의 '마! 함 해보입시더~'라는 말로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북부산지구 동문들의 파이팅을 외쳤다.

축사로 나선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는 지구동창회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며 북부산지구동창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북부산지구가 참석 동문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일 행사의 규모를 볼 때 크게 발전한 것은 확실하다"며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입집행부의 건승



북부산지구동창회 정기총회 행사 중 신입 박동열회장이 동창회기를 받아들고 있다

을 기원하였다.

박동열(35회) 신입회장은 취임사에서 "내부적으로 사람냄새 나는 훈훈한 지구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총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북부산지구의 위상을 높이고 총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지구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북부산지구의 40년 문지기임을 자처하는 문정수(12회) 동문이 해운대에 사

무실을 개설한 근황을 소개하면서 북부산지구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였고, 덕천동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박소남(15회) 동문이 북부산지구 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동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덕담을 하였다.

◇참석자(직책생략) = 문정수(12회) 박소남 이승준(이상 15회) 박종찬 옥동훈(이상 25회) 박종기 안풍(이상 28회) 예동해 이병훈 이종휘 정용운(이상 32회)

김철 이윤조(이상 33회) 강문실(34회) 고현봉 김길호 김동일 김세정 김익성 류인수 박동열 박창제 서석권 서창하 손수범 안병남 오문세 오시영 정상영 정해남 조영제 홍성표(이상 35회) 정윤희 최재혁(이상 36회) 양태형 허부남(이상 37회) 김경곤 박태봉 신동훈 이수관(이상 38회) 김병기 김종엽 차문영(이상 39회) 한수열(40회) 성찬기(41회) 김경진 한수성 최현덕(이상 44회) 조청래(45회) 문용성(46회) 안기범(50회) 이경원(52회) 고강인 오세빈(이상 54회)  
◇협찬(기수생략) =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 30만원, 박종기 중부산지구 회장 20만원, 이병훈 강서지구 회장 10만원, 정용운 동래금정지구 회장 10만원, 이윤조 부산진연제지구 회장 10만원, 김철 북부산지구 자문위원 10만원, 오문세 등대회 회장 20만원, 서석권 용마산악회 회장 20만원, 손수범 용마코스 단장 10만원, 박동열 신입회장 100만원, 35회 동기회 일동 50만원, 정윤희 해운대지구 회장 10만원, 신동훈 사하지구 사무국장 20만원, 한수열 남부산지구 차기회장 10만원, 총동창회 30만원.

# 경남중고 동문들 대도약을 위한 해운대페스티벌을 열겠다

## 해운대지구동창회, 마당밭에 추진력 강한 김태호(38회) 동문 취임 공약

해운대지구동창회는 2월 23일 해운대 마리나블루키친 뷔페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인사말에 나선 해운대지구동창회 정윤희(36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2년 임기의 회장을 5년간이나 맡았다면서 회장직을 무난하게 마치게 된 데 대하여 동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한국



해운대지구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대 마피아 중 하나가 경남중고등학교 동창회조직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기라성같은 선배님들이 많아 삶의 폭을 넓히는데 무한한 자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동창회 모임에 나오지 않는 동문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동문들의 모임에 대한 가치가 무궁무진함을 강조하고 모임에 무조건 참석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축사에 나선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정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마당밭에다 추진력, 정보력이 탁월한 김태호(38회) 신입회장의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고 하였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해운대지구동창회에

배대결(13회) 선배님이 터줏대감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지구동창회가 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있다며 김 회장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모교야구후원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해운대지구동창회모임에 최고의 출석률을 자랑하는 서병수(25회) 국회의원이 이취임을 하는 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인도 정치를 열심히 하겠다고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하였다.

김 신입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작고한 남진현(19회) 선배님을 비롯하여 선배님들로부터 배운 것이 많으며 선배님들을 잘 모시고 선배님들의 명예

에 누가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해운대지구가 취약한 후배기수의 발굴에 노력하고 4월쯤에 동문들의 대화합을 위해 해운대페스티벌행사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조경태(40회) 국회의원의 영상축전이 있었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의 건배사가 계속 이어졌으며 저녁 9시경 종료하였다.

◇참석자(직책생략) = 배대결 윤기갑(이상 13회) 김화옥 이강석(이상 14회) 김인구(24회) 김진우 박광용 박종찬 서병수 안희석 옥동훈(이상 25회) 조만석(26회) 구영소 박종기 이영희(이

상 28회) 박동혁(29회) 박영홍(30회) 함진홍 서규영(31회) 예동해 이병훈 이상헌 이용길 이종휘(이상 32회) 김상욱 박상국 박태종 이호인 최웅남(이상 33회) 김두섭 김중근 손병걸(이상 34회) 박동열 오문세(이상 35회) 송준호 윤경준 정윤희 최재혁(이상 36회) 김경곤 김금열 김태호 문귀상 박이현 박해도 신동훈 이수관 조용철(이상 38회) 김병기 김종엽 김형보 윤원욱 장유식(이상 39회) 김용철 한수열(이상 40회) 김종식 정현화 허재원(이상 43회) 조청현 최현덕(이상 44회) 권우일 조청래(이상 45회) 김유홍(49회) 오유준(50회) 김영태(51회) 양현승(52회) 고강인(54회) 장재환(56회) 남지원 의원(김효주, 수행기사2명)

◇현금협찬 = 총동창회 30만원,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 50만원, 오문세 등대회 회장 20만원, 최웅남 20만원, 사하지구 20만원, 남부산지구 10만원, 북부산지구 10만원, 강서지구 10만원, 동래금정지구 10만원, 중부산지구 10만원, 부산진·연제지구 10만원.

◇물품협찬 = 총동창회 타올 70장, 박진용 굿모닝성모안과 VIP시술권 70매, 윤경준 서울미성형외과 시술권 5매,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 냉장고 1대.

# 큰 인물 배출하는 만큼, 그 권위에 버금가는 지구동창회

## 총동창회에 큰 족적을 남긴 동창회장을 연이어 배출한 만큼 지구동창회의 활동에도 큰 책임감 느껴

남부산지구동창회가 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3월 15일 남구 대연동에 있는 그랜드모던트유스호텔 오페라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남부산지구동창회 2023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산지구회장이자 총동창회장인

이종휘(32회)회장은 인사말에서 총동창회장이란 더 큰 중책을 맡게 되었다며 남부산지구회장 재임기간에 실행하지 못한 사업까지 한수열(40회) 신임회장이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당한 기수를 뛰어 넘어 회장직을 수락한 한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사에서 한 회장은 “남부산지구동창회에서 연이어 총동창회장이 배출되고 있고 젊은 기수들이 주축인 경미회(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 약칭) 초대 회장까지 배출하였다면서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힘찬 기운을 이어받아 동문화합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축사에 나선 박종찬(25회)고문은 남부산지구동창회는 물론이고 총동창회가 상당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동창회가 변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열렬히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은 웃음이 넘치는 행운권추첨으로 이어졌고 9시를 넘기면서 종료

되었다.  
◇참석자 = △내빈 -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 최재혁(36회) 총동창회 편집주간,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임무홍(25회) 중부산지구 고문, 박종기(28회) 중부산지구 회장, 이병훈(32회) 강서지구 회장, 이운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 회장, 박동열 북부산지구 회장, 손수범(이상 35회) 용마코스 회장, 허부남(37회) 사하지구 회장, 김태호 해운대지구 회장, 신동훈 사하지구 사무국장, 이수관 강서지구 사무국장, 한민득(이상 38회) 용마골프회 회장, 김병기(39회) 부산진연제지구 사무국장, 김춘강(40회) 김해지역 사무국장, 김현오(42회) 동래금정지구 재무국장, 김대영(43회) 경미회 회장, 최현덕(44회) 북부산지구 사무국장, 서석진 경미회 사무국장, 오유준 해운대지구 사무국장, 정재우(이상 50회) 청마회 회장, 박성영(53회) 경미회 사무차장, 정준섭(54회) 등대회 재무국장.

△남부산지구 참석회원(직책생략)- 이종철(16회) 이수 김현덕 임민호(이상 24회) 박종찬(25회) 임상규 김용석(이상 28회) 박인평(29회) 김병기(30회) 박종호(31회) 김규원 백영태(이상 32회) 최웅남(33회) 정운성(35회) 김정현 김창일 김종백 최상도 안재익(이상 36회) 김태성 박정민(이상 38회) 박용한 박인석 백기현(이상 39회) 안성호 박기엽 배병훈 배영진 김용철 김근영 이기 성봉진 임태영 김경환 이태근 권귀동 이정삼 노인철 장정욱 한영탁 유태문 이상재 김병주 우영환(이상 40회) 전삼록 조용락 최영준(이상 41회) 박동식 안정일 문지성 정용중 김남표(이상 42회) 강병규(43회) 김경진(44회) 조청래 박진수 김종현 박종호 황귀웅 손창오 조태성 최윤석 김상수(이상 45회) 김백권(46회) 감기환 정민호(이상 47회) 김석훈(50회) 박보순 신석진 오성진 정유석(이상 51회) 김지운 김민수 한중현 허근영 김민철(이상 52회) 이진수 문희규 송승운

박성영(이상 53회) 고지현 조중완(이상 54회) 장지훈 황시우(이상 55회) 장재환 김대남(이상 56회) 김현운(58회).

◇현금협찬(기수·직책생략) = 광두회 20만원, 임민호 50만원, 김종현 30만원, 박종찬 200만원, 김대욱 50만원, 박종호 30만원, 이종휘 200만원, 최웅남 20만원, 이진호 20만원, 정운성 30만원, 김정현 100만원, 허부남 50만원, 박정민 100만원, 구동주 30만원, 김춘강 20만원, 한수열 100만원, 최영준 50만원, 김대영 30만원+롯데상품권 20만원, 김상수 50만원, 정신 50만원, 정재우 30만원, 정유석 30만원, 박성영 20만원, 총동창회 30만원, 경미회 30만원, 청마회 20만원, 김해지역 20만원, 중부산지구 20만원, 강서지구 20만원, 사하지구 20만원, 부산진연제지구 10만원, 북부산지구 10만원, 해운대지구 10만원, 동래금정지구 10만원, 용마코스 10만원.

◇물품협찬(기수·직책생략) = 박종찬 냉장고 2대, 오성진 보톡스 시술권 20만원 상당 10매, 한민득 맥주 5박스+소주 3박스, 구자삼 메로/블랙타이거새우 선물 세트 5개, 백기현 고급 어묵 선물 세트 3개, 한수열 여행용 캐리어 가방 2개, 우영환 전정가위 세트 10개, 정용중 이가한우 5만원 10매, 강병규 생략 막걸리 2박스, 조청래 20만원 상당 비데 1개, 김남표 고급화장품세트(20만원 상당) 3매, 김대남 맥스비타민 멀티플렉 10박스.

# 조직이 잘 되려면 구성원모두가 마케팅요원이 되어야

## 동래금정지구동창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동래금정지구동창회 정기총회가 3월 30일 양정동 갤러리움웨딩홀에서 개최되었다.



동래금정지구동창회 2023년도 정기총회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회장은 “2023년을 조직정비의 원년이 되도록 회칙 정비, 회원확보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동래금정지구회원들은 물론이고 총동창회와 내빈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총동창회사업전반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동래금정지구동창회가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격려하면서 “회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동문들 간 만남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인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회원들이 모두 지구동창회의 마케팅요원이

되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모교 야구후원회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최고참으로 참석한 천윤광(17회) 동문은 모두 젊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동문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선배들과 어울리는 것도 젊게 살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덕담을 했다. 참석인원에 대한 소개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간단한 인사말들을 하였다.

◇참석자(직책생략) = 천윤광(17회)

김기열(23회) 박종기(28회) 김영훈 이문열(이상 29회) 안중수(31회) 기영수 김창범 예동해 이웅길 이종휘 정용운(이상 32회) 이운조(33회) 박동열 서창하 안병남 이창렬 정범식(이상 35회) 김창일 최재혁(이상 36회) 김경곤 김태성 박정민 이수관 한민득(이상 38회) 김규웅 김종엽 백기현 서은식 이준영(이상 39회) 한수열(40회) 강인호 김현오(이상 42회) 조영호 최현덕(이상

44회) 조청래(45회) 김석훈(50회) 박성영(53회).

◇협찬 = 총동창회 30만원 + 머그컵60개,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 50만원, 김태호 해운대지구 회장 30만원, 한수열 남부산지구 회장 10만원, 이운조 부산진연제지구 회장 10만원, 이병훈 강서지구 회장 10만원, 허부남 사하지구 회장 20만원, 박종기 중부산지구 회장 20만원, 박동열 북부산지구 회장 10만원, 한민득 용마골프회 회장 30만원, 서석권 용마산악회 회장 10만원, 정용운 동래금정지구 회장 100만원+상품권 10만원, 이문열 동래금정지구 고문 30만원, 안중수 20만원, 최웅남 20만원, 이웅길 동래금정지구 부회장 가바소금 60박스, 박정민 동래금정지구 부회장 비타민C 60통, 김종엽 동래금정지구 사무국장 상품권 20만원, 정용중 외식상품권 20만원, 백기현 초량어묵세트 3개, 안풍 동창회보 축쇄판 5부.

지구·지역 동창회

# 지구동창회 회장단 연합회 결성

## 자생력을 갖추고 총동창회에 조직적으로 기여하자



지구동창회장들로 구성된 지구동창회 연합회 결성모임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구동창회 회장들은 지구 동창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총동창회 발전에 조직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3월 29일 서면 월강초밥식당에서 연합회 결성 발기 모임을 가졌다.

연합회 결성을 주도한 중부산지구 박종기(28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구

동창회의 운영방식이 지구동창회의 사정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지만 총동창회 산하 조직으로서 큰 틀에서 통일된 형식의 회칙으로 지구동창회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구동창회 간 교류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을 정해둘 필요가 있었다며 지구동창회장

간 친목을 넘어 정보공유,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 사회적 공헌 실현, 품격있는 지구동창회를 인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합회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구동창회의 회칙,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에 대한 안

내 자료도 배포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지구동창회의 활성화가 곧 총동창회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연합회구성을 축하해 주었고 총동창회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교베이스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구동창회에서도 지구동창회차원에서 기금모금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합회에서는 각 지구 형편에 따라 기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이 총동창회장과 중부산지구 박종기(28회) 회장 외 동래금정지구 정용운(32회) 회장, 강서지구 이병훈(32회) 회장, 부산진연제지구 이윤조(33회) 회장, 북부산지구 박동열(35회) 회장, 사하지구 허부남(37회) 회장, 해운대지구 김태호(38회) 회장, 남부산지구 한수열(40회) 회장, 사하지구 신동훈(38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였고, 총동창회 예동해(32회) 사무총장, 김경곤(38회) 사무국장, 최재혁(36회) 편집주간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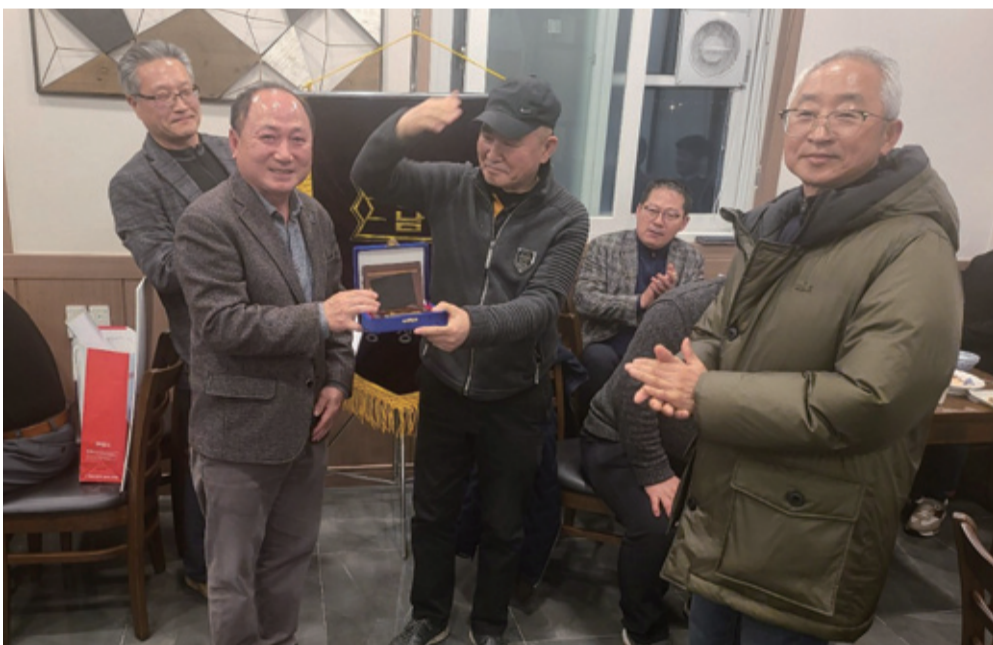
# 제31회 이후 동문들은 하늘이 선택한 동문

## 본인이 선택하였건, 하늘이 선택하였건 우리는 다 같은 동문

김해지역 동창회는 2월 22일 김해 수라상식당에서 외부인사 포함 37명이 모여 2023년 신년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김규선(36회)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김해지역이 전통적으로 30회 이전 선배기수들의 활동이 강한 곳이라는 하나 후배발굴에 힘써 선,후배 간 조화로운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김해지역 동창회가 56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면



김해지역동창회 신년회 및 임시총회에서 신임 김규선회장이 전임 박원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서 위 같이 오래도록 동창회 모임이 이어지도록 노력한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회칙 개정을 통하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각출하기로 한 점, 김규선 회장이 동창회 발전을 위한 고심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다고 하는 점에서 김해지역 동창회가 실질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총동창회에서 야심차게 진행 중인 모교베이스

볼센터 건립, 방송국개설, 전 동문이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허부남(37회) 사하지구 회장은 김해지역동창회의 신년회모임을 축하하였고 총동창회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하였다.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직전에 신임회장단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에 최호영(32회) 동문이 제안하

였고 나머지 모든 동문이 이에 동의하여 안건은 별도의 토론없이 지구밴드에 사전에 공지된 바 그대로 일괄 통과 처리되었다.

전임회장단의 인사말이 있었고, 최고참 선배인 김봉하(12회) 동문이 “경고인들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경고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달라”는 덕담을, 차의수(29회) 동문은 30회까지 기수들

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모교에 입학하였지만 그 이후 기수들은 하늘이 선택한 동문들이라며 후배들의 자긍심을 강조하는 덕담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박종찬(25회) 총동창회고문이 찬조한 냉장고 1대에 대한 행운권 추첨에서 막내 기수인 백송현(50회) 동문이 당첨되어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행사는 오후 6시 30분 시작하여 9시경 종료하였다.

◇참석자 = 김봉하(12회) 이상운 전영찬(이상 23회) 최연삼(28회) 차의수 박희규(이상 29회) 이광희 전준호(이상 30회) 황성철(31회) 박원근 양문성 최호영 이원천 배종찬(이상 32회) 정희태(34회) 신동해(35회) 김규선 김용진 김정현 박형출(이상 36회) 김기덕(이상 37회) 정재형 이태훈(이상 38회) 이기 이남주 김춘강(이상 40회) 송대성(43회) 조영호 김성준(이상 44회) 이상현(45회) 백송현(50회) △내빈-이종휘 총동창회 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최재혁(36회) 총동창회 편집주간,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허부남(37회) 사하지구 회장, 신동훈(38회) 사하지구 사무국장.



# KN1942야구단 창단

## 모교의 야구명문 명성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모교 출신 사회인 통합 야구팀인 KN1942팀이 창단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교 출신 사회인 통합 야구팀이 없다가 2022년도에 시행된 전국 규모의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가 개최되면서 임시 결성된 모교사회인 야구팀이 16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고 절치부심하여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결성된 모교 출신 사회인 통합 야구팀이 'KN1942야구단'이다. KN1942야구단은 야구관련 기존의 모교 출신 야구인 단체인 덕형리그 및 경야회 관계자와 야구후원회의 협조를 얻어 각 팀에서 우수선수들을 위주로 선발하여 구성이 되었으며 부산의 사회인 야구 강팀들로 포진되어 있는 소위 사회인야구 1부리그에 해당하는 '브라더배 골드리그'에 출전하기로 결의했다. 브라더배 골드리그는 만 40세 이상이면 선수출신이라도 인원수에 제한 없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KN1942야구단의 창단식은 2월 11일 코모도호텔 뷔페에서 개최되었는데 초대 단장직을 맡게 된 우영환(40회) 동문은 KN1942야구단이 탄생하

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팀창단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선수들에게는 모교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사에 나선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팀의 창단을 격려하면서 이기는 팀이 되어 모교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개교년도를 팀 명칭에 넣은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현재 모교를 대외적으로 빛낼 수 있는 것은 야구뿐이라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창단 첫해에 우승을 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으니 올해 우승을 하게 되면 팀 전원에게 멋진 저녁을 사겠다고 약속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부산 야구 소프트볼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 신(47회) 동문은 "사회인으로서 모교 야구복을 입고 다른 학교 팀과 경기를 하는 것은 동문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팀의 창단을 계기로 사회인 야구에 큰 물결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수단 임원진 소개, 단장 및 감독에 대한 유니폼 전달식, 감독 출사표, 선수단 대표로 나선 석상봉(44회) 주장의 선수 선서 등이 있었다. KN1942야구단의 임원진으로 우영환 단장 외 고문에 배병훈(40회), 팀닥터에 임태영(40회), 감독에 황정후(41회), 부단장에 서상대, 강 훈(이상 41회), 주장에 석상봉(44회), 수석코치에 김민기(49회), 사무국장 겸 코치에 김정현(50회), 사무차장에 박정진(53회) 동문이 각 임명되었다. 한편 KN1942야구단은 3월 19일(일)에 치른 첫 경기에서 '오서니언즈'를 10:9로 격파하였다. 다음 경기는 4월 2일(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상대팀은 '청마'다. <참석자> = △내빈-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총동창회 사무

총장, 최재혁(36회) 총동창회 편집주간, 허부남(37회)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박종찬(25회) 덕형회 회장, 이윤조(33회) 덕형리그 전회장, 양호진(36회) 덕형리그 회장,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 박동식(42회) 경미회 회장, 김대영(43회) 경미회 수석부회장, 감기환(47회) 경미회 사무국장, 한중현(52회) 경미회 사무차장, 안성호(40회) 동기회장, 김근영(40회) 포텐팀단장, 김영철(41회) 41회야구팀감독, 양인호(55회) 영도리틀감독, 신동훈(38회), 김경진(44회). <정회원 선수단(직책생략)> = 김병주 배병훈 우영환 임태영(이상 40회) 강훈 서상대 황정후(이상 41회) 석상봉 신진수(이상 44회) 손창오(45회) 서정민 이호정 장순재 정신(이상 47회) 손인호(48회) 김민기(49회) 김정현(50회) 김동연 우영진(이상 51회) 이정민(52회) 박정진 이봉희 하병오(이상 53회) 이향림(55회) 김병욱 이동훈(이상 56회) <예비입단자> = 박보순 신현식 오성진 정성훈(이상 51회) 김민철 허근영(이상 52회) 박정만 선재원(이상 53회) 김영빈(54회) 김현중 박상인 이동규 황시우(이상 55회) 임동섭(56회) <협찬> = 우영환(40회) 단장 700만원, 박종찬(25회) 덕형회 & 야구후원회 회장 120리터 냉장고, 허부남(37회) 사하지구회장 50만원, 양호진(36회) 덕형리그회장 50만원 상당 야구공 5박스, 조용철(38회) 경야회회장 50만원, 김영철(41회) 41회야구팀 감독 80만원 상당 배트 2자루, 박동식(42회) 경미회 회장 20만원, 김대영(43회) 경미회수석부회장 20만원, 손창오(45회) 경미회문화체육분과위원장 50만원, 정신(47회) 부산광역시 야구 소프트볼협회 회장 30만원, 오성진(51회) 513야구단 단장 고급삼페인 5병, 총동창회 50만원+후드티 10개.

### 경남고·경남중 야구복 후원

2월 3일 52회 동기들이 경남고를 방문하여 야구복을 후원하였다. 52회 정상중(동기회장·동서대학

교), 김지운(고문·GAKOREA 보험업), 김현진(고문·국방과학연구소), 한중현(부회장·씨엘투어), 정현철(부회장·부산고 야구부장), 김민철(부회장·세강메탈), 허근영(부회장·오각스

포츠), 54회 황창순, 55회 윤형주 동문이 후원에 동참하였다. 한편 52회 허근영, 김현진, 김민철 동문은 경남중 야구복도 후원하였다.



전민기(55회) 동문이 경남고 야구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52회 동문들이 경남고를 방문 야구부에 야구복을 전달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2회 동문들이 경남중을 방문 야구부에 야구복을 전달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남고 야구부 장학금 후원

전민기(55회·(주)비엘코 대표) 동문의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3월 7일(화) 경남고 교장실에서 열렸다. 전 동문은 경남고 야구부 선수 2명에게 년 1,200만원(매달 각 50만원씩) 후원. 이번에 후원을 받게 된 미래의 이대호는 82회 2학년 투수 진석현(사진 좌측), 83회 1학년 투수 차유주(사진 우측) 선수이다.

### 야구이야기

# 경남고 백영선 교장, 모교에서 야구하는 동문들 너무 부럽습니다. 우승을 향하여, 매년 더 뜨거워지는 각 팀 분위기

## 2023년도 덕형리그 개막식 개최

모교출신 사회인야구팀 리그인 덕형리그의 개막식이 10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3월 4일 경남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윤조(33회) 덕형리그 고문의 개막선언에 이어 내빈소개가 있었고 전년도 우승팀인 52회의 우승기 반환이 있었으며 양호진(36회) 신임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덕형리그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선후배간 유대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자며 게임의 룰을 잘 지키고 서로 간 예를 갖추어 게임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야구가 동문 사회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모교야구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베이스볼센터를 건립하게 된 사업진행 상황과 KN1942야구단 창단 소식을 전했다. 백영선 경남고등학교교장은 축사를 통하여 모교에 교장으로 부임하여 동문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들이 가장 부러운 것이었다면서 그러한 행복을 충분히 즐겨달라고 당부(?)하였다. 격려금 전달식이 있었고 이어 시구, 시타, 시포행사가 있었는데, 시구는 백영선 교장이, 시타는 이종휘회장이, 시포는 공명철 경남고교감이 수고해 주었다.

행사 후 학장동 구덕산장에서 회식을 하였고 개막을 축하하며 각 팀별로 선전을 기약하였다. 덕형리그



경남고운동장에서 2023년도 덕형리그 개막식이 거행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년도 운영진은 사무국장에 강 훈(41회), 사무차장에 신봉준(42회), 경기운영이사에 석상봉(44회), 심판위원장에 우영진(51회) 동문이 맡았다.

◇참석자 =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최재혁(36회) 총동창회 편집주간,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백영선 경남고 교장, 공명철 경남고 교감, 손수범(35회) 용마코스 단장, 신동훈 사하지구동창회 사무국장, 조용철 경야회 회장, 한민득(이상 38회) 용마골프회 회장, 김대영

경미회 회장, 박형규(이상 43회) 경미회 부회장, 정신(47회) 부산야구소프트볼 회장, 서석진(50회) 경미회 사무국장, 29회팀(현응열 외 1명), 33회팀(박상국 외 3명), 36회팀(장창용 외 15명) 37회팀(박종식 외 15명), 38회팀(김태성 외 15명), 40회팀(김병주 외 5명), 41회팀(김신욱 외 2명), 44회팀(석상봉 외 15명), 52회팀(허근영 외 2명), 53회팀(우재준 외 1명), 54회팀(김영빈 외 1명), 수형팀(박형규 외 3명), 55회팀(장지훈 외 1명)

## 좋아하는 야구를 더 즐기려면 실력향상부터

### 프로야구선수출신의 화려한 코치진으로 덕형리그 야구아카데미 개최

덕형리그는 덕형리그 야구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해 2월 4일 모교운동장에서 화려한 코치진으로 구성된 야구아카데미를 열었다.



덕형리그아카데미 훈련모습

스트레칭, 런닝을 시작으로 투수, 포수조(52회 이정민 코치, 롯데자이언트 피쳐출신), 내야수조(47회 장순재 코치, 한화이글스 선수 출신), 외야수조(44회 신진수 코치, 한화이글스선수 출신)로 분산되어 짝 짝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훈련에 임했다. 참가자전원은 토스베팅, 라이브베팅과 마무리 스트

레칭으로 훈련을 마감하였고, 기온이 오르면 야간시간대에 아카데미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12시 30분경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33회 이윤조 동문부터 68회 정민기 동문까지 각 기수들을 대표하는 선수들 37명이 참여하였다.

# 선배님들을 따라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 경남중,고등학교 2023년도 입학식 거행



경남고 입학식에 백영선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남중학교 제83회, 경남고등학교 제80회 입학식이 3월 2일 오전 10시 각 모교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은 경남중 156명, 경남고 170명이다. 입학식은 학교장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학교장 환영사, 총동창회장 축사, 장학금 수여, 학교관계자 및 교사, 담임교사 소개, 신입생, 재학생 상견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학교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에 입학하였음을 환영하면서 모교의 명성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이종휘

(32회) 총동창회장은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 위엄이 있다며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때까지 모교에서, 또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는 동문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열심히 하는 만큼 총동창회가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입학식이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어 경남고등학교에는 이종휘 총동창회장장과 김경곤(38회) 사무국장이, 경남중학교에는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박종기(28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이자 지구회장단연합회장이 참석하였다.



경남중 입학식 전경.

## 경남고 학부모 총회 및 대입설명회 개최



3월 24일 체육관과 국산관에서 3학년 학부모 대상 대입설명회와 1, 2학년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설명회가 각각 실시되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히 1, 2학년 학부모

들에게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별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3학년 학부모들에게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운영과 진로·진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경남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 실시



경남고 2학년 학생들이 3월 28일~31일 3박 4일 동안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경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특히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장육진 미술관에서의 미술 관람, 천문대에서의 천체 관측, 철로자전거 체험과 서울스카이에에서의 전망대 관람, 대학로 공연 관람 및 황리단길 체험 등

은 교실 안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동료애를 고양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다양한 지역 체험처에서 동료와 함께 움직이고 활동한 진로 연계 문화 예술체험은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우정과 팀워크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교실 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우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 경남고 1학년 현장체험학습 실시



경남고 1학년 학생들이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BNK 부산은행조은극장에서 진로활동과 연계한 연극을 관람하거나 대학 캠퍼스 투어를 통해 학과 체험을 미리 해 봄으로써 진로 진학에 대한 역량을 키웠다. 특히 체험 마지막 날은 흥미와 관심사에 맞

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설계하고 참여하여 적성과 소질을 주도적으로 탐색한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이는 학생 참여형의 체험활동이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관리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유의미한 활동이었다.

# 올바른 선택, 기회를 잘 포착하고, 성실하게 도전하는 졸업생

## 경남중학교 2023년도 졸업식에서 밝힌 김미정 교장선생님의 바램



경남중학교 제80회 졸업식이 거행되고 있다.

경남중학교 제80회 졸업식이 2월 8일 모교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졸업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졸업장 수여, 상장 수여, 학습스피치, 송사 및 답사, 내빈

으로 진학하였다.

정승환 졸업생이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신원빈 외 25명이 3년 개근상을, 강석찬 외 28명이 3

축사, 학교장 회고사,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졸업장은 졸업생 155명이 차례로 모두 단상으로 올라가 학교장으로 부터 수여받았다. 졸업생들은 일반 계고에 98명, 특성화고에 43명, 특목고 4명, 마이스터고 8명, 기타 2명

년 정근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김보영 외 12명이 공로상을, 박준건 외 15명이 기능상을 각 수상하였다.

대외상으로 동창회장상에 김승민, 운영위원장상에 정승환, 부산은행장상에 김성진, 서구청장상에 김홍엽, 김동준,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상에 김민재, 부산교총회장상에 김지환, 국회의원 안병길 표창장에 남재진 졸업생이 각 수상하였다.

김미정교장은 올바른 선택, 기회를 잘 포착하고, 성실하게 도전하는 졸업생이 되어줄 것을 주문하였다.

축사에 나선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졸업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수고한 학부모와 학교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졸업생들에게는 모교가 대통령을 두 분이나 배출한 명당터라면서 또 다시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며 어디로 진학을 하던지 모교에서 받은 기운을 살려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날 행사에 최재혁(36회) 편집주간과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이 동행하였다.

## 경남중학교 제26대 교장 “박순진선생님” 3월 1일자 부임



3월 1일 경남중학교 제26대 교장으로 박순진선생님이 부임하였다. 박교장은 한국의 많은 인재와 역량

있는 사회인을 배출한 명문 경남중학교에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에 무한한 기쁨과 설렘으로 학교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동문들과 동창회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 지원을 당부하였다.

## 경남중 중앙현관 학교자긍심을 업그레이드 하다



## 생명존중 및 학폭예방캠페인

경남중은 3월 24일 위클래스 주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업 형식으로 생명존중 및 학폭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3학년 포래상담반이 주축이 되어 생

명존중 및 학폭예방 관련 4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진행되었다.

교장, 교감, 각부장님들이 참석하여 학생참여를 유도하며 사제간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캠페인 활동이었다.



경남중은 지난 2월 중앙현관을 재정비하여 신학년과 새교장을 맞이하기 위해 새단장을 하였다.

경남중의 상징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동문들의 자부심과 역사를 고취하기위

해 학교상징물·역사연대기·인물들을 게시하였다.

이양걸·정진상·권우일 동문이 디자인, 설계 등 도움주었다

퇴임한 경남중 김미정 교장

# “학생성장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지극정성 노력”

## 안전통학로 확보·학교공간 혁신·친환경잔디구장 조성 보람 모교사랑으로 넘치는 동창회분들과 많은 소통...지원에 감사

‘애살 많은 여자 교장선생님’ ‘삼행시의 여왕’으로 경남중고인들에게 각인 돼 있는 김미정 경남중 교장이 2월 7일 정년퇴임식을 갖고 평생 몸담아 헌신했던 교단을 떠났다. 교직생활 39년(1984.3.1.~2023.2.27.) 중 마지막 3년 6개월을 경남중 교장으로 봉직하고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김 교장에게 퇴임의 변을 들어봤다.



-경남중에 부임하실 때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는 중용의 글을 교육적 신념이라 말씀하셨는데 잘 이행되었는지요?

▲일상생활에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으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남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인간관계, 학교경영, 교육활동 등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노력하였고, 부족한 부분들과 필요한 부분들에 정성을 다하여 챙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학생성장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니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디에 역점을 두셨는지요?

▲무엇보다 ‘학생성장’을 교육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둘째,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 민주적인 청렴한 학교경영 셋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원의 전문성과 여건조성 넷째,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를 통한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 활동의 활성화 다섯째, 학교 내외 교육환경 정비와 시설 구축 등으로 학생의 꿈·끼를 지원을 함으로써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해왔습니다.

-재임기간 대표적인 업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안전통학로 확보(서구청 2억지원)로 학교에 부임하여 2년 반의 세월을 걸쳐 정문과 후문 앞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부임 시 학생 등교맛이를 하면서 등굣길이 매우 복잡

하고 열악함을 보았습니다. 학부모님과 힘을 모아 교육지원청, 서구청에 끊임없는 공문과 협의로 학교담장 바깥 공영주차장 14곳을 폐지하였고, 2억을 확보하여 담벼락, 통학로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학교 학생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안전하게 활용하며 학교주변 환경이 아주 쾌적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학교공간혁신(교육청 4억지원)과 친환경잔디구장 조성(교육청 123,847,140원)으로 학교 내의 8곳의 공간, 운동장을 개선하였습니다. 2층 복도와 테라스를 갤러리와 야외카페로, 학생 소공연장·학년별 홈페이지를 쉼터와 독서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미술실을 리모델링했고, 학년별 상담공간을 확보하고, 학교라운지(학부모 카페)를 조성했습니다. 만족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도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놀기도 하면서 위로 펼쳐진 맑은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외부인과 타 학교가 부러워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첫 여성교장으로서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경남중학교의 훌륭한 교장선생님들께서 닦아놓으신 발자취를 이어받아 여성적인 세심함과 푸근함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매우 좋아하고,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남학교지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중요시하여 학교시설과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위생관련 시설보완과 각종 공모사업으로 학

교교육활동을 진행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력향상프로그램과 바른 인성을 기르 고자 상담프로그램, 특강, 외부시설 연계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예제와 용마리그전, 체육대회 등을 다시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학생교복을 현대 실정에 맞게 따뜻하고 실용적인 교복으로 바꿔 2023년도 신입생부터 새로운 교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경남중의 자부심인 쌍백선, 교포, 입학기수까지 멋진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 교장이니 무엇보다 학부모님들과 소통이 잘 되었고, 학교교육활동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동창회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부임 시 남학교라 동창회와의 관계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따뜻하게 후배들을 품어주시는 좋은 인성과 모교사랑으로 넘치신 동창회분들이라 거리감이 없이 소통이 잘 되었으며 든든한 지원자 및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동창회 큰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경남중학교의 교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곤 했으며 많은 동문들의 학교방문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창회가 지원한 발전기금으로 학교시설 보완, 장학금, 정수기 교체, 야구부 지원, 교육활동 지원 등 아주 긴요하게 사용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학교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퇴임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하신다면?

▲첫 교장이자 마지막 교장을 경남중학교에서 3년 반의 임무를 마치게 되어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뜻한 대로 계획한 바를 잘 이룰 수 있었고, 그 일들을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동문님들이 함께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더욱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전해주시다면?

▲39년간 매여 있던 일과에서 벗어나 힐링하면서 건강을 챙기며,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운동주 ‘서시’의 한 구절이면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Sunil**  
(주)선일물산

내 가족이 먹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선일물산**

대표이사 조태성 (45회)

선일물산 부산 본사 및 공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1087-2  
Tel. 051-261-4949 Fax. 051-262-7000

2023 경남고 야구부 현황



2023 경남중 야구부 현황



(보기 순: 이름 번호, 포지션/투구타석, 키/체중)



교장 박순진    교감 이성광    야구부장 김경배    감독 김상욱    수석코치 석지형    야수코치 김민하    보조코치 김동인



3학년  
→  
(총11명)

김도윤 2 주장 내야수/우우 172/61    최우영 25 포수/우우 180/80    이건호 17 투수/좌좌 175/61    강민성 1 투수/우우 175/65    안재현 21 투수/우우 176/85    김도형 18 투수/우우 175/77    곽도현 11 투수/우우 186/72    김형우 16 내야수/우우 175/73    서정휘 7 내야수/우우 172/62



2학년  
→  
(총14명)

이제형 31 외야수/우좌 173/65    신연우 10 외야수/우우 170/65    이태수 28 투수/우좌 175/65    이진형 29 투수/좌좌 180/96    이정운 36 투수/우우 178/79    서호준 19 투수/우우 173/61    김상겸 15 투수/우우 170/55    양현우 12 포수/우우 166/64    이지후 22 포수/우우 165/64



1학년  
→  
(총3명)

정우열 6 내야수/우우 170/55    최재혁 4 내야수/우우 162/72    안상이 32 내야수/우우 180/67    김승호 27 내야수/우양 165/58    신강훈 5 내야수/우우 176/60    김지후 8 외야수/우좌 171/61    김민규 9 외야수/좌좌 163/63    손현승 13 투수/좌좌 175/75    전시을 14 내야수/우우 168/58



정준우 23 외야수/우우 165/58

\*1학년 선수는 아직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니다. 11명 외리틀 선수들이 8월에 입학예정입니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詩한수**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 사무엘울만의 '청춘' 중에서 -



## 서울더빛의원

SEOUL THE LIGHT CLINIC

"당신을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피부과 / 정형외과 / 가정의학과**

**줄기세포클리닉 / 두피클리닉 / 면역클리닉**

**쁘띠시술 / 레이저시술 / 피부질환 / 안티에이징**

**47회 배준수(경영이사)**  
010-8283-1214

**예약 및 문의**  
**051-959-7575**

전포역 3번 출구 도보 6분 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서면 더샵센트럴스타아파트 상가동 B106호

# 총동창회의 실패, 막힘없이 꾸준히 활동해야 하는 단체

## 직능 및 동호단체 회장단 2023년도 1차 상견례

총동창회는 3월 28일 동창회관에서 19개 직능 및 동호단체 회장단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단체 집행부의 건승을 격려하는 한편 총동창회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직능 및 동호단체의 활동이 총동창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단체들의 활동에 총동창회가 협조할 것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단체의 활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단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참석한 단체장들은 각자 소속된 단체의 회원구성과 활동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면서 총동창회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참석한 단체장들은 총동창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베이스볼센터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성하는데 단체 차원에서 형편에 따라 일정 금액씩을 보태기로 약속하였



직능 및 동호단체 회장단이 동창회관에서 2023년도 1차 상견례를 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다.

◇참석자 =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최재혁(36회) 총동창회 편집주간, 김경곤(38

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정현상(32회) 용건회 회장, 박창석 용마테니스회 회장, 서석권 용마산악회 회장, 손수범 용마코스 단장, 오문세(이상 35회) 등대회 회

장, 양호진(36회) 덕형리그 회장, 한민득(38회) 용마골프회 회장, 김정현 KN1942야구단 사무국장, 서석진(이상 50회) 경미회 사무국장.

# 능력이 있는 기업인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 경남중고 덕경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덕경회(‘덕형관 출신 경제인 모임’의 약칭)는 2월 20일 남구 그랜드모먼트 유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덕경회 박종찬(25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총동창회에서 덕경회가 가장 생산적인단체라며 동창회에 현실

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있는 기업인이 될 것을 역설하였다. 동문들 간에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후배들은 경영의 지혜와 경험을 챙기고 선배는 마음이 젊어지는 것으로 상생할 수 있기를 부탁했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

를 통하여 덕경회는 마음으로 기대고 있는 단체라며 기업을 잘 운영해서 총동창회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고문변호사로 윤인태(30회) 변호사, 이철원(39회) 변호사가 위촉되었고, 감사로 임태영(40회) 공인회계사가 위

촉되어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오후 8시부터 회원들이 모두 본인의 업체에 대한 소개와 근황을 밝히는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활기차고 글로벌한 덕경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모임은 9시 30분경에 종료되었다.

◇참석자 = △총동창회 집행부 및 고문번호사/감사 - 예동해(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최재혁(36회) 총동창회 편집주간,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이철원(39회) 고문번호사, 임태영(40회) 감사 △회원(직책생략)- 박종찬 김익수(이상 25회) 이종휘 백영태(이상 32회) 이동근(33회) 백운창 황기운(이상 34회) 김규선 양호진 이창(이상 36회) 허부남(37회) 구동주 정재형 조용철(이상 38회) 백기현(39회) 김춘강(40회) 김영철 윤종진(이상 41회) 강병규(43회) 구자삼 권우일 조태성 최상배 최재근(이상 45회) 이재광(46회) 정신(47회) 정유석(51회) 김민철(52회) 김문건(53회) 이재필 조중완(이상 54회).



### K-청마회 신임회장의 남다른 각오

# 총동창회 제2의 부흥기를 이끌고 있는 대선배님들의 아바타가 될 터

후배 발굴 및 육성을 기치로 50회 이상 기수들로 구성된 K-청마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3월 17일 서면더스타뷔페에서 개최되었다.

청마회 초대회장인 정재우(50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청마회가 결성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과 동기 및 후배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신임회장을 주축으로 청마회가 더욱 내실을 기하고 총동문회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축사에 나선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유명무실해진 경기고등학교동창회를 예로 들면서 과거의 명예에만 매몰되어 후배가 없는 동창회는 유지될 수가 없다. 내일의 희망인 후배들이 동창회에 나설 수 있는 발판으로서 청마회의 존재감은 경남중고 총동창회에 매우 소중한 자산임을 역설하고 청마회조직이 더욱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청마회 명예회장인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축사에서 40회기수들을 주축으로 한 ‘경미회(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 약칭)’에 이어 50회 기수들을 주축으로 한 청마회가 결성된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면 소회를 밝히고, “우리 동문회는 경미회와 청마회의 존재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직이 더욱 탄탄해져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동창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인생선배로서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총동창회와 함께 열심히 생활할 것을 당부하였다. 함께 참석한 허부남(37회) 청마회 명예부회장은 “청마회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거침없는 활동을 당부하였다.

정유석(51회) 신임회장은 “청마회뿐만 아니라 동창회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는 선배님들의 삶을 벤치마킹하여 청마회를 잘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다. 공약사업으로 현재 70명인 회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충하고 이를 위해 각 대학교에 청마회 지회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총동창회에 처음 진입하는 후배기수들의 동기회 창립총회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경미회와 긴밀



K-청마회가 2023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관계를 형성하여 동창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개개인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결과적으로 나날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11명의 신임회원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2부 행사는 김경진(44회) 동문이 진행하였는데 참석인원수보다 많은 행운권 추첨 직전에 진행된 스포츠댄스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축하공연이 크게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저녁 9시가 넘어서 종료되었다.

◇참석자 = △내빈 - 박종찬(25회) K-청마회 명예회장, 이종휘 총동창회 회장, 이웅길(이상 32회) 동래금정지구 부회장, 양호진 덕형리그 회장, 최재혁(이상 36회) 총동창회 편집주간, 허부남(37회) K-청마회 명예부회장, 김은형 K-청마회 명예부회장, 김경곤 총동창회 사무국장, 신동훈(이상 38회) 사하지구 사무국장, 백기현 용마산악회 부회장, 김종엽(이상 39회) 동래금정지구 사무국장, 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 회장, 최영준(41회) 경미회 고문, 김현오(42회) 용마골프회 사무국장, 김대영 경미회 회장, 강병규(이상 43회) 경미회 부회장, 김경진(44회), 권우일 경미회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조창래(이상 45회) 남부산지구 사무국장, 김백권(46회) 경미회 사회공헌분과 위원장, 배준수 총동창회 집행위 부회장, 정민호(이상 47회) 경미회 친목교류분과 위원장, 김민기(49회)

△K-청마회 회원(직책생략) - 김석훈 김재웅 김재호 김정현 서석진 오유준 정재우 황현후(이상 50회) 구민석 김동언 박보순 송심곤 신석진 신현식 유상일 정유석(이상 51회) 김민수 김민철 김지운 김현진 허근영(이상 52회) 김문건 박성영 우재준 황명수 황선경(이상 53회) 고지현 김영빈 이동하 이재진 임길환 조중완(이상 54회) 강문성 김태현 이동규 이동주 장지훈 황시우(이상 55

회) 강지훈 김대남 오민일 오신욱 이승민 임동섭 장재환(이상 56회) 강평민 김동욱 서명기(이상 58회) 김동석 김성수 김현덕 이희동 정현목(이상 59회) 김현종 유영재(이상 60회) 김재완 유동수 이상준 한민(이상 62회) 김덕형 전명재 허성준(이상 67회)

◇협찬(기수, 직책생략) = 박종찬(문영회) 200만원, 박종기 10만원, 김대욱 50만원, 이종휘 100만원, 허부남(김은형) 200만원+수건 100장+송승준 싸인볼 12개 아크릴커버 포함, 신동훈 쇼핑백 120개, 백기현 어묵세트(30만원) 5개, 우영환 50만원, 한수열 100만원 삼성

기프트카드, 김춘강 20만원, 최영준 50만원, 신봉준 30만원, 김대영 30만원+롯데상품권 20만원, 안병규 50만원, 조창래 30만원, 김상수 50만원, 권우일 30만원, 구자삼 메로블랙타이거 5개, 조태성 건어물 세트 5개, 김백권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2장, 이재광 30만원, 배준수 볼펜 120개+혼소주 30병+보톡스 시술권 10만원권 10장, 정민호 10만원, 정신 50만원, 최진영 10만원, 구원모 100만원, 50회 동기일동 50만원, 정재우 50만원, 오유준 10만원, 정유석 300만원, 신석진 10만원+고기세트 5개, 오성진 20만원, 김동언 10만원, 박성영 10만원, 김대남 건강식품배 100%즙 120개(200만원 상당), 김성수 전자렌지 1대+에어프라이기 1대+투척용소화기 4대, 금화회 100만원, 총동창회 50만원+80주년 우표 50개, 경미회 50만원, 용마골프회 30만원, 남부산지구 20만원, 동래금정지구 20만원, 중부산지구 10만원, 피부나라 김경오 회장님 물품찬조 아이폴리 면역개선제 120개(300만원 상당), 덕형리그 50만원, 정유석 104만원(2차 마로니에 포차)

## 모교와 총동창회의 품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 용마코러스 2023년도 임시총회 개최



용마코러스가 공연준비를 위해 연습하고 있는 장면.

용마코러스는 2월 28일 저녁 동래부산코러스합창단연습실에서 당일 1부 연습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집행부 구성을 확정하고 공연계획이 발표되었다. 2022년까지 단장을 맡은 김형수(31회) 동문에게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신임 손수범(35회) 단장은 2023년도 공연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용마코러스가 동창회에서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그 존재감이 날로 향상, 발전하고 있다며 단원으로서 자부심과 품격을 갖추어달라고 주문하였다.

용마코러스는 ①4월 초 부산시설공단 스포원통합비전선포식 초청공

연 ②5월 12일 이태석신부 추모 합창제 초청 공연 ③6월 18일 부산고교연합합창제(참가학교 : 경남고, 금성고, 경남여고, 남성여고, 동래여고, 부산여고)에 참가 ④11월 중 창단 10주년 정기발표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용마코러스 집행부는 단장에 손수범, 지휘자 조성빈(47회), 사무국장 신봉준(42회), 발전위원장 안병규(44회)로 구성되어 있고, 19회 노덕현 동문부터 60회 성민기 동문까지 총 46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다. 이날 총회는 인근 식당으로 옮겨져 늦은 시간까지 담소로 이어졌다.

경남중고 미래발전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K-청마회와 함께 동창회 차세대리더모임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코모도호텔에서 경미회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중고 미래발전협의회(약칭 '경미회')는 2월 17일 코모도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까지 가졌다. 경미회 박동식(42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도에 11개의 행사를 치렀다면서 회장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했다. 비판은 면전에서 하도록 하고 새로운 집행부에 큰 격려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알래스카인디언의 '니가 그의 뒤에 있는 이유

는 니가 그의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격언으로 회원들의 파이팅을 외치며 인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젊은 기수들로 구성된 경미회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경미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경미회가 차세대 리더모임으로 동창회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명예회장으로써 경미회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격려했다. 김대영(43회) 신입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몸소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가족동반 야유회 개최, 청마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 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것,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공약하였다. 기타 토의에 나선 최영준(41회) 경미회 고문은 경미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며 슬림화하는 노력이 필

요해 보인다고 하였고, 모교 및 총동창회 사랑기금 3천만원 달성을 신입 집행부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5개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 최우수분과에 대한 시상, 신입회원 가입에 대한 소개 및 승인, 2023년도 분과 구성과 구성원들의 신년 각오를 밝히는 시간 등이 있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인사는 박종찬 경미회 명예회장,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최재혁(36회) 총동창회 편집주간,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김정진(44회) 동문 등이다. ◇경미회 4기 임원진 = △회장 김대영(43회) 고문 중 직전 회장 박동식(42회) △부회장 김영희 박형규 이진배 강병규(이상 43회) 윤상훈(44회) 구자삼(45회) 최원석(46회) 정신(47회) △사무국장 서석진(50회) △사무차장 박성영(53회) △감사 우유준(50회) △분과위원장 = 대외협력분과-권우일(45회) 미래발전분과-이재광(46회) 사회공헌분과-김백권(46회) 친목교류분과-정민호(47회) 문화체육분과-손창오(45회)

품격있는 운동, 품격있는 동문

골프가 대중화되었다고 해서 GOLFER의 품격 떨어질 수 없어

용마골프회는 3월 6일 울주 서생에 있는 더골프클럽에서 당일 8개조가 정기라운딩을 하고 저녁에 클럽하우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용마골프회 이동근(33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회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협조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시하였고, 8개조의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어 다행이긴 하나 인원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 신입집행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용마골프회가 총동창회와 연계하여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용마골프회 회장이기도 했던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성실하고 의욕적인 한민득(38회) 신입회장의 회장취임을 축하하면서 평일



용마골프회가 2023년도 정기라운딩을 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골프는 다소 여유있는 동문들의 스포츠가 분명하다며 그 만큼 회원들의 품격있는 언행을 부탁하였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용마골프회에 총동창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많으며 현재 모교의 대외적인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야구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고, 김대욱(29회) 총동창회 고문은 총동창회장일 때는 바빠서 잘 몰랐는데 회장직을 그만두고 나니 동문들에게 더욱 애착이 많이 간다며

자주 어울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용마골프회의 건승을 기원하였다. 한 신입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골프밴드를 활성화 시킬 것과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각종 배틀을 시행하고 푸짐한 선물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8월에 1박 2일 원정 라운딩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따뜻한 가슴과 큰 포부를 가지고 회를 운영하겠다고 회원들의 성원을 당부하였다. 신입임원진의 소개가 있었으며 행

운권추첨까지 하면서 회의를 하는 동안 내내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행사는 8시경 종료되었다. ◇참석자(직책생략) = 곽두희(24회) 박종찬(25회) 김대욱 박동혁 박봉구 이문열(이상 29회) 김중규(31회) 이종휘(32회) 김윤성 박태종 송종현 윤상현 이동근 이윤조(이상 33회) 구동주 김경곤 박정민 심재민 이수관 정재형 조용철 한민득 한철환 오희진(이상 38회) 김규용 김종엽 이준영 하순호(이상 39회) 한수열(40회) 김현오 신봉준(이상 42회) 박형규 이진배(이상 43회) 배봉건 탁정환(이상 44회) 김상수 김영남(이상 45회) 권유찬(48회) 김민철(52회) 박성영 이봉희(이상 53회) 이동준 정준섭(이상 54회) 강문성 이동규 한재호(이상 55회) 김현운 김민우(이상 58회) ◇협찬(기수생략) = 한민득 제4기 용마골프회장 가디건 65벌 + 골프공 12박스(카트별 1박스),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 50만원 + 냉장고 120L 1대, 한수열 남부산차기회장 삼성기프트카드 10만원, 총동창회 50만원.

# 동기회

## 16회 동기회 = 봄나들이 기차여행



3월 16일 전국 각지에서 경북 청도로 집결하는 봄나들이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나는 데다 수학여행을 연상케 하는 기차여행이라 모두 나이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역시 동기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최고라는 생각에 공감하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날 새마을 발상지 기념관을 관람하였고 와인터널에서 감와인을 6명이나 마셨는데 서로 술값을 내겠다는 바람에 부득이 동기회의 전통에 따라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이긴 김상호 이양근 이종철 정우광 최정일 하주열 동기가 분담했다. 오찬(청도추어탕)을 찬조한 채경일 동기에게는 서고명 동기가 삼호어묵을 선물했다.

◇참석자: (부산역 승차) 강종국 권명석 김무광 김봉구 김상호 김정갑 김한선 박영수 서고명 여성국 윤세진 이맹립 이종철 이치호(서울) 주기민 최정일 현승부, (구포역 승차) 이점일 정영일 정우광 하주열, (밀양역 승차) 강상권 변일수 이명수 이양근, (청도역 합류) 이명수(합천) 채경일, (만찬 참석) 박기용 박민소 서태복 손송방 이영일

## 일육산악회 = 정기산행



16회 산행 모임인 일육산악회는 2월 5일 금정산~동문~남문~만덕고개 구간으로 2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동래 보쌈, 돼지 수육 오찬을 먹으며 올해도 건강하고 부지런히 산행하자고 서로에게 다짐하였다. 3월 19일에는 장산 북측 둘레길~초록공원 샘터까지 등산모임을 가졌으며 산행 후 반여동 '그 남자집'에서 오찬 후 해산하였다.

◇참석자: (2월 5일) 강양수 강종국 권명석 김한선 박민소 서고명 서태복(부부) 이점일 정우광 최정일, (3월 19일) 강양수 강종국 권명석 김한선 서고명 서태복(부부) 안국정 이점일 정우광(부부) 최정일

## 18회 동기회 = 정기총회 개최



2월 24일 서면 동기회관(유원오피스텔 1913호)과 인근 녹산횃집에서 30명의 동기생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동기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졸업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 가진 총회인지라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고 시종일관 진지한 토의가 이어졌다.

오수명 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서부원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미리 배부된 2022년도 결산자료를 중

심으로 강덕용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중요안건인 회장 선출 문제는 역대 전임회장들과 현 임원진들로 구성되는 회장단 모임에 그 절차를 일임하기로 하였다. 졸업 60주년 행사와 내년 봄으로 예정된 크루즈 해외여행 추진, 동기회관 정리 등의 중요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월 29일 1차 회장단 모임을하기로 하였다.

## 24회 동기회 = 2월 모임



2월 24일 삼송초밥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주점권 동기를 2023년도 수석부회장으로 추대, 승인하였으며, 미국에 거주 중인 김성환 동기가 참석해 40여 년 만의 우정을 나누었다.

◇참석자: 강동우 강종문 구자웅 김경남 김도인 김명배 김성권 김성환 김인구 김인철 노상우 배재일 서정득 손세영 안명수 안태인 오성환 이현우 정영환 조영태 주점권 최동우 최명진 최승국 최우림 최원주 황규선

## 24회 산우애 = 2월, 3월 정기산행(제245차, 246차)



2월 4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체력단련장~장자산 정상~큰고개~큰둘레길 관광소~큰둘레길 체력단련장~작은둘레길~용호종합사회복지관~지중해 식당 구간으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산행 후 회식 장소에서 등반 코스를 안내한 임민호 고문과 2024년 1월 1일부터 산우애 회장을 맡게 될 안형수 대장의 인사가 있었다.

3월 4일에는 경남고 정문~구봉산 시산제 장소~중앙공원~국제시장~자갈치~성문식당 구간으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회식 장소에서 2022년도 산우애 결산 보고 및 2022년도 경부 합동 산행 수입 지출 결산 보고가 있었다. 4월 산행은 4월 7일 경주 남산 등반, 5월 산행은 5월 13일 일광역~최승국 고문 농장 코스로 결정하였다.

◇참석자: (2월 4일) 곽두희 김인구 김인철 배재일 안형수 유흥석 임민호 장동출 장수현 장현동 조재진 최승국 최원주 황규선 황성동, (3월 4일) 곽두희 구자웅 김도현 김인구 김인철 박해성 서정득 손세영 안형수 유흥석 이현우 조재진 최승국 최원주 태창업 황성동

## 24회 이사빌 = 2월, 3월 정기모임



2월 15일 플라틴 당구 카페에서 2월 모임을, 3월 15일

수영 힐링 당구 카페에서 3월 정기모임을 각각 가졌다. 2월 15일 경기 결과 우승 박인호, 준우승 주점권, 3월 15일 경기 결과 우승 정기춘, 준우승 최승국.

◇참석자: (2월 15일) 곽두희 김경남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김장현 노상우 박인호 이재능 임덕철 정기춘 주점권 최우림 태창업 한승철, (3월 15일) 김경남 김명배 김인구 김장현 노상우 박인호 배재일 손세영 임덕철 정기춘 최승국 최우림 태창업

## 24회 후라회 = 3월 모임 개최



3월 6일 성문식당에서 3월 모임을 개최했다. 2022년도 결산 보고 후 장한중 동기 추모, 불참 회원의 근황 소개가 있었다.

다음 모임은 5월 15일 갖기로 하고 모임 장소는 당분간 성문식당으로 하되,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받기로 하였다.

◇참석자: 강종문 김경남 김명배 김인구 김인철 김학주 노상우 박홍규 임민호 장민재 최동우 최우림 태창업 황성동

## 24회 = 졸업 50주년 기념 3대 명산 답파(踏破)-한라산



칠순을 지난 나이에도 청년이 되고 싶은 부산, 서울의 여섯 동문 일행이 3월 6일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섰다. 지난해 9월 중순 지리산 종주 완주에 이어 한국 3대 명산 답파 두 번째 순서로 왕복 9시간 20km의 만만찮은 적설 산행을 하였다. 놀라운 일은 칠순 나이의 부인 두 명이 정상에 같이 올라서며 기쁨을 토해냈다는 거다. 이들은 4월 중순 보름간의 네팔 마르디히말 트레킹에도 나서며 마지막 일정인 설악산 등정은 5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

◇참석자: 서기홍 안형수 유인환(부부) 이현국 정봉화(부부) 최원주

## 25회 동기회 = 정기총회



2월 24일 코모도호텔 15층 이벤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안편성 및 행사계획, 동기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2023년 신임 동기회장으로 김종현 동기가 선출되었다.

◇참석자: 강용주 고명식 김광돈 김길수 김령 김옥권 김용수 김유환 김익수 김종만 김종현 김진우 노태호 박광용 박문갑 박종찬 박진국 박진상 배동명 서병수 서보민 송정규 안영복 안희석 여성조 옥동훈 윤종렬 윤태석 이상식 이상화 이수영 <기사 28면에 넘김>

### 동기회

<기사 27면에서 받음>

이신화 이인구 이태근 임무홍 장세훈 장승엽 전상태 전섭태 정윤철 조판재 최차환 최재환 하동문 한봉재 한준석

#### 25회 산우회 = 용마산악회 합동산행



3월 12일 남해 설흘산, 응봉산으로 용마산악회 합동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김구화 노태호 서보민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하동문 황곤태

#### 25회 당구회 = 3월 정기모임



3월 9일 서면 나이스당구장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저녁식사 비용은 김종현 회장이 찬조하였다.

◇참석자: 김규진 김옥권 김종현 옥동훈 이상식 이상영 이신화 장세훈 전상태 최차환 한봉재

#### 26회 동기회 = 정기총회



2월 24일 초량 차이나타운 흥성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년 만에 가진 모임이었다. 주요 안건으로 신임회장에 조만석 동기를 선출하고 감사에 윤희석 동기를 유임시키며 부회장 등 나머지 임원 선임은 차기 회장에 일임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박상호 전임회장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참석자: 강수남 강태중 권중대 권해국 김상현 김선일 김섭권 김영훈 김일대 김종우 박상호 성재업 송진성 신형진 양준영(대구동기회) 왕정일 윤희석 이경호 이광태 이상원 이성구 이영학 이철학 장경재 정익교 정인수 조만석 차갑성 최수일 최의수 추기복 허종 현동우(재경동기회 감사) 황광수

#### 28회 울산동기회 = 정례모임



제28회 울산동기회 정례모임이 3월 14일 중구 태화강국가정원 근처 '팔도나지촌'에서 열렸다.

봄바람에 실려 온 꽃소식 덕분인지, 9명이 참석해 근래 보기 드문 성황을 이루었다. 울산에서 인천으로 이사한 이승열 동문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이양훈 동문의

아들이 곧 판사로 임용될 것이라는 낭보가 관심을 끌었다. 드높은 참여의식을 자랑하는 울산지역 28회 동기생들은 모두 건강하고 무탈함에 서로를 격려하며 참다운 우정을 만끽했다.

◇참석자: (사진 왼쪽부터) 정치영 권기택 이승열 전원경 배명철 김옥성 신중현 이양훈 하재근

#### 30회 동기회 = 정기총회



3월 3일 서면 녹산횃집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2023년 신임회장으로 이명건 동기가 추대되었으며 2022년 결산 및 감사보고가 있었다.

◇참석자: 구교익 권용택 권택술 김경수

김병기 김영주 김유기 김재수 김재중 김재철 김준호 김진동 김진천 김한실 김효수 노치훈 명효준 문장호 박동욱 박정태 박희관 배성근 서강태 서민석 송한식 신영주 신인기 오수동 옥유전 왕순모 우홍제 윤인태 이동대 이명건 이원경 이원용 이학수 인준승 정광 정승진 정용하 정중범 정채화 정해석 최우철 홍인기 황철민

#### 31회 동기회 = 북부지회 모임

2월 8일 연산동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전통주와 막걸리를 곁들인 모임을 했다. 이구동성으로 건강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 자주 어울리며 젊게 살자며 동기간 우애를 다졌다.

◇참석자: 권해철 남철우 문성일 박종건 박희암 안중수 이원철 이종만 이희준 전창수 정용식

#### 31회 동기회 = 동부지회 모임 후기



2월 16일 수영 예엔 중식집에서 2023년 동부지회 첫 모임을 가졌다.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진국·정건호 동기와 조영기·김부영 동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였다. 최봉근 동기와 함께 온 전창수 동기가 함께해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김판덕 사무국장이 올해 일정에 상세히 설명했고 회보 구독 증원에 동참을 부탁했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기 모두 올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덕담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참석자: 공종열 김부영 김재술 김진국 김판덕 김호성 박세환 서규영 서수교 오민일 장건호 전창수 정인화 조영기 최봉근

#### 31회 동기회 = 서부 모임

2월 22일 초량 화교거리에 있는 화교 대반점(중식집)에서 2023년 서부지회 첫 모임이 있었다. 김운택 총무를 회장으로, 김성규 동기를 총무로 각각 선출했다.

김 신임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한때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동기 모임이었던 서부지회의 옛 영화를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도록 회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각오를 피력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김판덕 사무국장이 올해 총동창회 및 동기회 행사 일정을 설명했고, 신임 총동창회장 취임 공약인 동창회보 구독 4천부 달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다.

◇참석자: 김성규 김영수 김용호 김운택 김판덕 서동균 안용모 예현수 이석우 이성식 전상길 조봉우 천장호 최광수 최재식 최해영

#### 34회 동기회 = 정기총회



3월 10일 더스타뷔페에서 28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36회 동기회 = 정기총회



2월 24일 부전동 굴다리식당에서 28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결산보고 후 김용진 동기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식당에 노래시설이 되어있어 자리를 옮기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음악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곽상호 김규선 김동일 김병조 김상백 김용진 김중백 김준안 박종선 박형출 서동천 손진규 송준호 안재익 우한주 이동현 이상권 이성호 이재형 이정범 이학수 정병기 정윤희 최원식 최재혁 최태섭 한만준 황상철

#### 36회 울산동기회 = 2023년 1회 정례회



36회 울산동기회(회장 제갈재환)는 2월 10일 남구 신정동 '삼삼 조개구이전골' 식당에서 2023년 1회 정례회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1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후일담과 근황을 나누면서 우의를 다졌고, 검은 토끼해인 올해에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것을 약속하면서 건배를 했다.

<기사 29면에 넘김>

# 동기회

<기사 28면에서 받음>

1차로는 아쉬워 읊긴 2차는 타잔 노래타운에서 진행했는데, 노래 부르기는 뒷전인데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1차에서 마신 술을 모두 깨고 해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참석자: 강태원 김진한 박성만 박철중 심왕보 이원석 정영호 정윤희 제갈재환

## 41회 동기회 = 신년회 및 정기총회



2월 2일 저녁 미가정에서 신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주제로 서로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흥겨운 모임이었다.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여근섭 화백이 동기회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출품한 '부드갓' 작품의 공매행사였다. 작품은 최고가 50만원을 호명한 한창희 동기에 낙찰되었고 낙찰대금은 동기회 통장에 입금되었다. 조만간 동기인 백창봉 교수의 '상처없는 협상 이야기'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참석자: 강병오 강훈 김득수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인수B 김정태 류지섭 박익현 백창봉 성찬기 안광근 유수호 이주하 전삼록 정동만 천성원 최영준 추교용 한창희 황정후

## 41회 골프회 = 창립모임



3월 23일 스크린대회를 시작으로 골프 모임 부활을 위한 힘찬 첫발을 뗐다. 스크린대회는 3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3월 23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마감한 것이다. 최영준 동문이 회장을 맡았다.

메달리스트는 전삼록(최다참가상까지 수상) 동기가 차지하였다. 준우승, 룡기, 니어는 박정호 동기가 싹쓸이, 행운상은 이정삼 동기, 신페리얼 우승은 백선민 동기가 각각 차지하였다. 다수의 중복 수상을 한 박정호·전삼록 동기가 3장의 상품권을 찬조하여, 추첨을 통해 강석희·이종우·이주하 동기가 골고루 받았다. 3차는 생맥주로 이양걸 동기가 전액 찬조하였다.

◇참석자: (대회) 강석희 박정호 백선민 이정삼 이종우 전삼록 최영준, (응원) 강훈 서상대 안광근(10만원 찬조), 여근섭 이양걸 이주하

## K42봉 산악회 = 정기산행



3월 26일 동아대 하단 캠퍼스에서 출발하여 승학산 정상을 찍은 후 꽃동네로 하산하였다. 미리 예약한 돼지수육, 파전, 야채묵에 시원한 막사를 곁들이며 산행 뒤풀이를 마무리하였다.

## 42회 골프동호회 = 출범기념 라운딩



2월 17일 골프동호회 출범 기념 라운딩을 하였다. 매월 셋째 금요일 양산 다이아몬드cc에서(07시, 3조) 연부킹하였다. 3월부터는 43회 후배와 동반 라운딩 예정이다.

## 42회 베이스캠프 = 정기모임



2월 22일 대연동 시절인연(일식,양식 오마사케 전문식당)에서 와인 모임 베이스캠프를 개최하였다.

문지성 캠프장의 '와인과 보이차 콜라보레이션' 주제로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가 있었다.

## 44회 동기회 = 정기모임



3월 24일 홍콩반점 서면롯데점(44회 문형준 동문 운영)에서 2023년도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정기모임 시 회비를 2만원으로 확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봄, 가을 동기회 야유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봄 야유회를 6월 2주차에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동기회 밴드에 공지하여 정확한 일자를 정하기로 하였고 탁정환(전 회장) 동기가 투어버스를 찬조 지원하여 강원도 정선·태백지역 관광으로 정하였다.

야구부 후원회 관련하여 설명 및 가입 독려, 총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윤상훈 동기 회장이 2차 호프 회식비와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 등을 찬조하였다.

## 45회 동기회 = 2월 정기모임



2월 24일 삼세판(56회 오민일 동문 운영)에서 2월 정기모임을 가지고 동기들 간 우의를 다졌다.

◇참석자: 강민수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동규 김병한 김상일 김성기 김성준 김영주 김민중 김정환 김종현 박진수 배형동 손창오 신상효 신태호 안형오 이광석 이좌철 정행덕 조청래 조태성 황귀용

## 52회 산악회 = 정기산행

2월 11일 드디어 2023년도 첫 정기산행을 다녀왔



다. 그간 코로나 때문에 들쭉날쭉 몇번 제대로 다녀오지 못했는데 위드코로나시대가 시작되면서 동기들과 본격적으로 정기산행을 약속한 첫 산행이었다. 범어사에서 출발하여 고당봉을 찍고 금정산성으로 내려오는 비교적 수월한 코스를 선택하여 다녀왔다. 금정산성에서 불고기와 옷오리백숙으로 배를 채우고 동래역에서 커피 한잔으로 산행을 마무리하였다.

◇참석자: 김민철 김형준 박선중 조용수 허홍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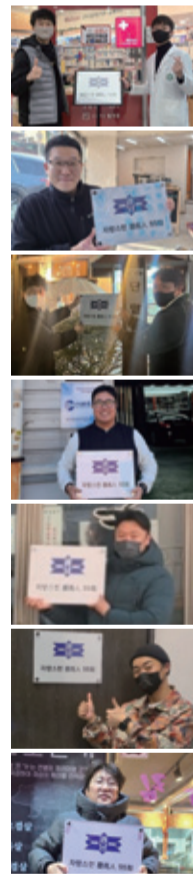
## 54회 동기회



3월 5일 초량동 가정성당에서 강성운 동기 늦장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참석자: 고지현 김영빈 문철민 운영훈 이동하 이재진 이찬희 조상우 조중완

## 55회 동기회 = 자영업 친구들 현판 전달식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 자영업 친구들을 응원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동기회 현판을 만들어 매장을 돌며 현판식을 가졌다. 자랑스런 경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나아가 동기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가족, 지인, 친구들이 들러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현판식을 가진 동기 및 상호는 다음과 같다. △김현달 '센텀맑은약국'(해운대구 센텀남대로50) △백광일 '롤로전자담배'(사상구 대동로147) △안진영 '빙수가든'(해운대 달맞이길) △이동규 '디팩토리'(사상구 낙동대로 1420번길50) △이동현 '대구돼지국밥'(남구 지계골로 22) △정규진 '쉐헤어 해운대본점'(해운대해변로298번길9) △한재호 '호호돈가'(사상로238번길11)

## 56회 동기회 = 정기총회



3월 18일 덕천동 구룡성에서 첫 정기총회를 가졌다. 홈커밍데이 결산 보고, 회칙개정 내용 등과 친목 교류 이외의 공지사항 전달이 있었다.

<기사 30면에 넘김>

### 지역·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9면에서 받음>

외국에 있거나 타지에서 참석 못 하는 동기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했다. 특별히 김대남 재경동기 회장이 참석하였고 비타민 30박스 찬조하여 정기총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신규 가입 동기에게 벤츠 우산과 롯데 투수 최준용 사인볼을 증정하였다.

◇참석자: 강동현 강지훈 강호성 구본빈 김경후 김대남 김선철 김성현 김영준 김정훈 김채은 김형근 남용수 박명률 박재우 손정현 오민일 오신욱 윤진혁 이승민 이준희 임동섭 임윤섭 장재환 천두만 최근식

#### 대전·세종지역동문회 = 신년회 및 정기총회



2023년도 신년회 및 정기총회가 2월 6일 둔산동 '맛창'에서 있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개별 인사, 근황 소개 등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안건 논의에서 연회비를 모아 부산의 총동창회, 서울의 재경동창회에 조금이나마 보냄으로써 모교 사랑에 보탬이 되도록 실천하자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참석자: 김동순(8회) 진준하(22회) 서현수 이증훈(이상 26회) 류용호(27회) 임재덕 정법동(이상 28회) 이종포(29회) 김정택(31회) 임형택(32회) 남승훈 박태원 윤태성(이상 33회) 윤상경(36회) 백창현(37회) 박종국(39회) 김대호 임병호(이상 41회) 김중운(47회) 박경호(49회) 강철진(72회)

#### 남해하동동문회 = 경남고 야구부 후원 결정



2월 10일 남해읍 한우프라자에서 정기총회 모임을 가졌다. 김영선(43회) 회장의 주재로 동문 간의 소통 방안과 더불어 모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별히 '2023년 사업'으로 '경남고 야구부 후원금 100만원 지원'을 결의하였다.

#### 경양회 = 3월 정기모임



양산지역 동문모임인 경양회가 배성호(35회) 회장의 주최로 3월 30일 양산 정성순대 북정점에서 개최되었다. 모임 일자를 홀수 달 넷째 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정했다. 구동주(38회) 동문이 2차 맥주를 찬조하였다.

◇참석자: 이영두(31회) 배성호(35회) 구동주 박원 이양배(이상 38회) 하순호(39회) 최병호(41회) 김신현

(43회) 윤상훈(44회) 박진수 황귀웅(이상 45회) 최원석(46회), 정 원(47회)

#### 통영지역동창회 = 3월 모임



3월 11일 자연목장에서 3월 월례회를 가졌다. 신입 회원인 하성포(39회·우원건설 전무) 동문의 인사에 이어, 칠순을 맞은 김광철(27회) 동문에게 축하금 전달과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이 이어졌다. 우원건설은 한원우(26회) 동문이 대표로 있다.

◇참석자: 박일웅(13회) 신성찬(25회·회장) 한원우(26회) 김광철(27회) 김기산 배성만(이상 33회) 주승진(36회) 하성포(39회) 신종목(40회) 김동희(46회) 임경우(53회)

#### 현대차 경남고 동문회 = 2월 모임



2월 15일 북경에서 2월 모임을 가졌다. 이날 정성훈(38회) 동문이 신입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정 신입 회장은 로얄샬루트 21년산 1병을 찬조했다. 2차 모임은 호프집에서 이어졌다.

◇참석자: 정인영(32회) 김상갑(34회)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정찬홍(43회) 김상조 김정민 유동욱(이상 52회) 백명국(57회) 김재준 정류환(이상 61회)

#### 경불회 = 정기법회



3월 18일 연산동 법계정사(정인빌딩 6층)에서 이태랑·장영길(이상 13회) 동문을 비롯한 40여 명의 불자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가족법회를 하였다.

법회에 앞서 정영천(21회) 경불회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법회가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해제되어 가족 법회를 통해 많은 불자동문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고성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을 법사로 초빙해 '♡행복해지는 삼사순례' 제목의 청정법문을 들은 뒤 인근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굴국밥으로 저녁공양을 하며 행사를 마쳤다.

#### 용마산악회 = 2023년 제1차(총229차) 남해 응봉·설흘산 정기산행



3월 12일 90명의 용마산악회 동문 및 가족들이 3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남해 응봉, 설흘산으로 2023년 첫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이번 산행지는 수려한 풍광의 한려수도 국립공원과 가천 다랭이마을로 이름난 곳이다. 예정시간보다 10여분 늦게 부산을 출발해 상춘인파로 봄비는 함안휴게소에 들러 한 박자 쉬었다가 산행 기점인 선구마을에 오전 11시 15분 도착했다. 집행부의 간단한 인사와 산행 설명을 들은 뒤 단체 기념 촬영을 마치고 오전 11시 30분께 산행을 시작하였다.

산행을 50분 정도 하고 옥녀봉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천둥소리와 먹구름이 갑자기 밀려오더니 비를 뿌리기 시작해 대충 식사를 마무리하였다. 신속히 채비를 마치고 산행을 이어갔지만 봄비 치고는 제법 굵고 많은 양이 산행 마칠 때까지 내린 관계로 배낭과 옷이 모두 흠뻑 젖는 우중산행을 모처럼 경험했다. 선두그룹은 예정대로 완주를 하였지만 안전상 후미 일부는 일정을 단축하여 갈림길에서 탈출하여 참가자 모두 가천 다랭이마을로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다.

#### 용마테니스회 = 3월 월례대회



3월 25일 3월 월례회를 화명동 생태공원 테니스 코트에서 진행하였다. 17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4월 월례대회는 4월 29일 사직구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 예정이다. 용마테니스회는 동문들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총동창회에도 협조를 당부해 왔다.(총무: 최하용(40회) 010-3575-5013)

◇참석자: 신민철 정덕치(이상 13회) 김상현(26회) 김상정 김정유 김태완 박재훈 배정환 이인재(이상 28회) 김현곤 조선(이상 34회) 권기범 박창석(이상 35회) 김태성(38회) 박근성 백성대 최하용(이상 40회)

#### 용건회 = 2023년도 정기총회



3월 31일 민락동 용마횃집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성철(32회) 전임회장이 동기생인 정현상(32회) 신입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김 신입회장은 취임사에서 용건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동문사회에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용건회의 존재를 알리고 회원 발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박 전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자고 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같은 취지의 말로 회원들을 격려하고 총동창회가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을 당부하였다. 김종근(34회) 신입회원 소개와 인사말이 있었고, 오경석(20회) 예동해(32회) 전명재(67회) 동문의 건배사가 있었다. 사회는 이충현(49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 길 위에서 나를 보다

박흥규(24회)동문 드론사진전



의사이면서 (사)한국 드론사진작가협회장인 박흥규 동문의 첫 드론 사진개인전이 2월 13일 (월) ~ 18일(토) 까지 부산 중구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박 동문은 작은 공간에서 아픈 사람들만 치료하다가 걷는 길과 드론을 만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고 한다. 박 동문은 동창회관 건립에 5천만원을 선뜻 기부하여 총동창회 집행부를 놀라게 하였던 동문이다.

- 1. 붉은 갯벌.
- 2. 백리 섬섬길
- 3. 부두
- 4. 한려수도
- 5. 용두산
- 6. 광안대교



## 정행권(9회) 고문 별세



제28대(2004년~2005년) 총동창회장을 지낸 정행권(9회) 고문이 지난 2월 3일 별세하셨다. 정 고문의 임

기 중에 모교에서는 개교 62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고, 0교시 수업 폐지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모교과학관, 체육관 개보수공사, 도서관을 덕형관으로 옮기는 사업이 시행되었다. 유족으로 부인과 2남 1녀가 있다. 장남 정운성은 모교 35회로 총동창회 집행위부 회장직을 맡고 있다.

## 동 정

손부흥(15회) = 울주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손부흥(15회) 동문이 고향사랑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부산 사상제일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손 동문은 지난 2월 17일 울산 울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개인 연간 최고 기부액이다. 1942년 울주군 두동면에서 태어난 손 동문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뒤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35년간 손부흥 정형외과를 운영했으며, 부산 사랑의요양병원 원장을 거쳐 현재 사상제일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용원(28회)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임명



김용원(28회·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동문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를 거쳐 미국 미시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은 김 신임 상임위원은 군 법무관,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 등을 거쳐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 부산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을 맡았다.

박인균(29회) = (사)한국정책포럼 제13대 회장 취임



박인균(29회) 동문이 1월 1일 각계 교수, 학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정책포럼' 제13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했고, 한나라당 의정부를 당협위원장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 고문을 지낸 바 있다. 또한 박 동문은 서울시 바둑협회 부회장에 이어 송파구 바둑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바둑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박철민(37회) =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로 임용



박철민(37회·전 헝가리 대사) 동문이 울산시 국제관계대사에 임용되었다. 박 동문은 울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경남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미 플로리다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23회에 합격한 박 동문은 1989년 당시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주네덜란드 1등서기관, 주러시아 참사관, 주유엔 공사참사관, 유럽국장, 주포르투갈대사,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강병규(43회) = 부산합동양조 '생탁'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 수상



부산 향토기업 부산합동양조 '생탁'이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부산합동양조는 2월 14일 서울 더 리브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은 제품의 만족도와 우수성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위원단의 평가에 의해 분야 별로 매년 선정된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받은 패밀리 브랜드 '우리협쌀 생탁'에 이어 대표막걸리 '생탁'도 이번 수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2006년 상표를 등록한 생탁은 17년 역사를 가진 브랜드다.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경북과 수도권에도 유통되고 있다.

DAEGUN PRECISION MACHINE  
더불어 함께하는 기업 (주)D.P.M

주식회사 D.P.M

대표이사 **탁정환 (44회)**

당사는 조선, 방산, 석유 화학플랜트 분야의  
5축 정밀 절삭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최고의 품질과 기술 개발,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로라길 38(미음동)  
TEL. 051) 301-0031 FAX. 051) 301-0041  
Mobile. 010-8542-7633 E-mail. tcruis@naver.com

제23-1차 <경남중고 80년사> 정오표

2년 반의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에 출간된 “경남중고80년사”의 여러 곳에 오기(誤記)가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시간의 부족과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기록이 되기에는 미흡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세심히 살피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을 아프게 한 동문 또는 가족분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향후에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동창회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정보도를 할 것이며, 19년 뒤의 100년사에서는 완벽한 역사서를 남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정사항을 발견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교100년사 籌備위원 박종기(28회) ☎010-3843-0517 parkgyver2@naver.com 라인/카톡 parkgyver2

<경남중학교 편>

- 하단 사진설명 오기 : ‘12회 손영수’→ ‘미술부장 4회 손영수’
p.100 좌측 하단 사진 아래 “▲...슈퍼스타 엄태현”이란 캡션이 붙은 사진이 엄태현 동문이 아닌 타교생의 사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100년사에는 교체하겠습니다.
p.115 제목 오기 : ‘1942년 해방후-1945’→ ‘1945년 해방후-1949’
p.416 명단(12행 33째줄) 오기: 김강걸→김경걸
p.419 명단(8행 25째줄) 오기: 임성훈→임성철
p.421 명단(2행 22째줄) 오기: 안병윤→안병을
p.421 명단(6행 31째줄) 오기: 김동욱→김동욱

p.410 제12회 명단을 아래 명단으로 대체. (이 부분을 오려 책자에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Table with 20 columns listing names and their corresponding names for the 12th meeting, with corrections and replacements.

<경남고등학교 편>

- p.890 상단: ‘줄다리기기용 밧줄’→ ‘줄다리기용 밧줄’(기1자 삭제)
p.898 중간: 개교 35주년 ‘무산시 교육감’→ ‘부산시 교육감’
p.1015 하단: 대통령 취임 ‘본교인 경남고에서’→ ‘모교인 경남고에서’
p.1017 YS의 편지 전문: ‘나의 본교’등 5곳의 ‘본교’를 모두 ‘모교’
p.1031 중간 수학여행: ‘1996년 4월 15부터 18일까지’→ ‘15일부터’(‘일’추가) 「본교 80년사」→ 「모교 80년사」
p.1038 중간: 94년 주임교사 인사 ‘야구부 부감: 변승규’→ ‘변성규’
p.1046 소제목 ‘본교 50년사’→ 「모교 50년사」 (이와 관련된 내용중 ‘본교’는 모두 ‘모교’로) ‘본교 영육’→ ‘모교 영육’, 그 중간 ‘본교사’→ ‘모교사’로
p.1052 중하단: 「본교 교육환경조성 심의위원회」→ 「모교...」(위원회 이름)
p.1437 상단 8회 3-C반 명단 누락 : 김재범, 김형벽, 박희욱
8회 3-C반 명단 오기: 강성도 → 강성태
하단 10회 명단은 33면 하단으로
p.1450 제31회(1977년 졸업) 명단 중, [3-9] 맨 아래줄, 신용주 → 신용필

p.1438 제12회(1958년 졸업) 명단을 아래 명단으로 대체. (이 부분을 오려 책자에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Table with 20 columns listing names and their corresponding names for the 12th meeting (1958 graduation), with corrections and replacements.

<기사 33면에 넘김>



함께 만드는 동창회보, 편집주간 및 편집위원 교체

# 동창회보는 우리 모두의 것

그간 경남중고총동창회보 발간을 주관해 온 김종명(29회) 편집주간과 편집위원회는 2월 발간된 445호 회보 발간을 끝으로 그 임무를 완료했다. 후임으로 최재혁(36회) 동문이 편집주간으로, 울산경제신문 논설실장인 박철중(36회) 동문, 공인회계사 김철원(36회) 동문, 부산일보 이사이자 논설위원인 강병균(38회) 동문, 동인고 교감이자 국어교사인 김태성(38회) 동문, 부산보건대 전 교무과장인 정인철(38회) 동문이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편집주간 최재혁(36회)



편집위원 박철중(36회)



편집위원 김철원(36회)



편집위원 강병균(38회)



편집위원 김태성(38회)



편집위원 정인철(38회)

### 동문사랑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면 되지 않을까?

최재혁 신임주간은 총동창회장에 이어 평준화 세대 첫 편집주간에 임명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고 맡은 바 소임을 잘 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믿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동문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면서, 합리적인 사고로 정제되고, 폭넓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할 것과 회보에 동문들의 소식은 물론이고 직접적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도록 노력하겠으며, 모교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회보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창회보는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졸업생, 재학생, 모교관계자, 그 가족들 모두의 것으로 다함께 만드는 것이라며 동문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하였다.

편집위원들도 위원위촉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회보 발행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다짐하면서 동창회보가 나아가갈 길에 대하여 각자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 모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박철중 편집위원은 동창회보의 큰 기능은 선후배 간 정보공유와 소통 활성화 일 것이다. 인공지능(AI)의 진화로 챗GPT라는 괴물까지 등장했다며 아날로그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첨단 디지털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총동창회보도 거대한 조류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변화의 물결을 타고 나아가야 한다. 선후배의 경계 지점을 평준화 이전·이후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생각과 행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내일을 구상하고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지면에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 용마인들을 연결하는 사관(史官)으로서 기록의 역사를 이어가야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동창회보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마당

김철원 편집위원은 옛 것을 이어가는 것이 전통이고 옛 것을 허무는 것이 혁신인데 그렇다고 전통과 혁신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전통을 이어가면서 혁신하는 길이 동창회보가 나아가야 할 길로 여겨진다며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창회보에 모교 건물, 교가, 교훈 등에 대한 소개와 단상 동창회 산하단체에 대한 결성 일자 연혁, 설립목적, 역대 임원단, 현재 구성원, 기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청룡기 우승, 최동원 선수, 2022년 황금

사자기 우승, 이대호 선수를 포함한 프로야구 활약선수 등 야구사 이야기 등을 시리즈로 연재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피력하였다.

### 다양한 소식으로 동문들에게 사랑받는 동창회보가 되도록

강병균 편집위원은 총동창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 배포하는 주된 목적은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행사 정보를 동문들끼리 공유하고, 동창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을 것이다. 수많은 동문들의 이야기를 신속하게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동창회보가 모교를 통해 인연을 맺은 동문들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동창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동문들 간 연대감과 결속력도 강화해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며 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편집주간을 도와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소식을 담아내 동문들에게 사랑받는 동창회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총동창회집행부가 지향하는 바에 일조하는 동창회보가 되도록

김태성 편집위원은 평준화 이후의 세대가 처음으로 경남중고 총동창회장직을 맡아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변화와 혁신으로 모든 경남중고 동문들이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동창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현 동창회 집행부의 방향인 것 같다. 편집위원으로서 현 집행부의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보다 많은 동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선배님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문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런 것을 회보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 소외된 동문들을 화합의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정인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으로서 동창회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의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이룩한 업적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체 동문의 뜻과 메시지를 담아내야 하는 동창회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동문 뿐 아니라 동창회 참여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외된 동문들의 뜻을 대변하여 화합의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데 동창회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기사 32면에서 받음>

p.1437 제10회(1956년 졸업) 명단을 아래 명단으로 대체. (이 부분을 오려 책자에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 제10회 (1956년 졸업)

[3-1]	고석명	고용재	고한운	구자윤	김관현	김교덕	김기문	김병식	김봉곤	김상남	김시열	김영환	김용목	김원원	김장건
	김재수	김중규	김중학	김한석	나하연	박성하	박야원	박춘석	배길순	배세한	변경수	서수현	서인교	서진홍	손동호
	손정	신영기	신영철	신용규	안조만	양진기	양현두	예중두	오부근	오중환	윤대욱	윤상중	윤우성	윤윤혁	이경도
	이병표	이상원	이상희	이승락	이승영	이원우	이원홍	이인태	이정호	이종기	이현수	이호술	전규삼	정진동	정태원
	조길수	진강	최병도	최상현	허만욱	허일웅	홍청일	황재익	황현태						
[3-2]	강대성	고광수	고무웅	권영조	김기석	김덕환	김동민	김봉석	김상규	김성주	김성준	김승수	김영돈	김용찬	김재곤
	김재기	김재화	김재현	김경엽	김종구	김창규	김창목	김평순	김한식	김홍준	류동웅	문판도	박광식	박영이	박중수
	방희덕	배기대	배태기	서봉원	서정철	서철하	송남진	심영환	안금준	이기돈	이봉원	이상원	이영희	이우영	이의도
	이정배	이중섭	이학성	임학재	장석찬	장인목	장청구	장명재	전경일	전영대	정기喆	정종만	조상배	조용기	조정만
	천진욱	최성렬	추월무	추인영	추중완	하영수	한규상	한상기	허섭						
[3-3]	강성진	강수방	강용길	강주상	권대관	김기주	김대원	김상국	김상배	김상태	김영대	김선동	김정학	김준호	김창권
	김창조	김태현	김한조	김해룡	류계경	박광춘	박상수	박주환	박지호	배효룡	손순안	손해수	송중현	송호균	신봉관
	안홍	양홍모	오정용	오한권	원용민	유정욱	이강식	이계창	이상실	이상희	이성태	이지홍	이창복	이현진	이현태
	임경우	전병규	정무길	정기환	정운필	정태영	정훈	조중제	조판재	조규일	주영동	차대희	최낙건	최병국	최장훈
	한기윤	한홍석	허경	허동진	허영오	황규수	황중하								
[3-4]	강용배	강진평	권용술	김기우	김기하	김기훈	김달준	김동수	김상원	김성갑	김성규	김승찬	김민수	김영덕	김용초
	김용식	김익구	김종원	김중해	김창두	김희준	남명달	문석노	문종오	문형대	박영귀	박영배	박은옥	박재신	박현제
	방봉우	방일호	설종관	송재신	신봉수	신용범	안개동	안태우	오강욱	오기봉	윤봉희	윤태현	원봉도	이동욱	이상진
	이승준	이윤수	이재순	이해수	임중호	장병태	장성봉	정상구	정상영	정승석	정인호	정진배	정창진	정한태	지현수
	추홍식	하봉수	허정구	홍성정	황봉실	황정조									
[3-5]	강석중	강희운	권영호	김광환	김계순	김동곤	김만욱	김영진	김영호	김용훈	김인철	김정학	김종대	김종철	김종팔
	김중호	김철희	김태관	김형립	맹봉찬	문석주	박경수	박세록	박완곤	박원생	박철문	박해철	배순대	배중섭	설종선
	신규태	신익철	안중비	양희복	염용수	이상철	윤재모	이만규	이상상	이상배	이수기	이승	이인희	이홍렬	이이근
	장기상	장수만	전병직	정갑환	정상수	정주현	조동선	조문환	조진진	조성계	조훈진	차동렬	차동석	최대성	최주형
	한경봉	한윤구	홍기석	홍순태	황상조	황수석	황정욱								



### 요즘 어떻게?

#### <13회>

△김일수= 부인상. 1월 28일 별세 메리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 <20회>

△서경석= 모친상. 2월 4일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서 발인. △윤봉태= 모친상. 2월 3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에서 발인.

#### <24회>

△김진윤 = 빙모상. 2월 20일 수원 연화원 장례식장 210호실에서 발인. △유철주= 삼남 필연군 3월 25일(토) 낮 12시 30분 서울 성동구 보tega마지오 갤러리아포레G층 로스타노홀에서 결혼. △이현우= 부친상. 3월 12일 경남 김해 경희중앙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에서 발인. △추두석= 빙모상. 2월 11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발인.

#### <26회>

△박오옥= 빙모상. 2월 26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6호실에서 발인. △정거돈= 장남 동우군 3월 26일(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더 라움 폰드가드에서 결혼.

#### <28회>

△김관세= 모친상. 2월 5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영철= 장남 근모군 2월 5일(일) 부산 서면 헤리움 웨딩홀에서 결혼. △김정유= 빙모상. 1월 28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준배= 장남 진완군 3월 26일(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부산에서 결혼. △이창순= 빙모상. 3월 2일 부산 영락공원장례식장에서 발인. △배선진= 빙모상. 3월 5일 용인 설낙원 경기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병근= 장남 일용군 3월 25일(토) 리베라호텔 몽블랑홀에서 결혼.

#### <30회>

△김재일= 장남 경호군 3월 18일(토) 오후 6시 플라자호텔 22층 지스팀하우스에서 결혼. △고(故) 서재원= 장녀 한나양 3월 25일(토) 낮 12시 W웨딩 국민연금홀 1층 컨벤션홀에서 결혼. △송치근= 빙부상. 3월 14일 부산 금사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심봉석= 딸 희주양 4월 29일(토) 오후 4시 논현2동 성당 2층 대성전에서 결혼. △유동헌= 모친상. 2월 19일 좋은강안병원장례식장 8호실에서 발인. △윤중순= 장녀 혜령양 4월 1일(토)

오후 1시 고려대학교 교수회관1층 고려스퀘어홀에서 결혼. △이명건= 장남 준영군 4월 8일(토) 오후 1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본관2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이원경= 장녀 현정양 4월 16일(일) 오후 2시 서울 남산예술원 웨딩홀에서 결혼. △조경제= 장녀 유진양 2월 25일(토) 낮 12시 역삼동성당에서 결혼.

#### <31회>

△문성일= 빙모상. 2월 24일(경남) 진주장례식장 3호실에서 발인. △정용식= 빙모상. 2월 13일 남천성당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봉근= 아들 제한 군 2월 11일(토) 낮 12시(부산)한화리조트웨딩홀 3층 베르나차홀에서 결혼. △최상웅= 아들 성민 군 2월 11일(토) 낮 12시 30분(부산)W웨딩시티 4층 아이리스 홀에서 결혼.

#### <34회>

△강윤모= 딸 3월 19일(일) 오전 11시 30분 W웨딩 김해더파티웨딩홀 4층 벨리스웨딩홀에서 결혼. △박근용= 부친상. 3월 22일 수병원장례식장 103호실에서 발인. △박영관= 딸 3월

####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형석(5회) = 1월 31일 작고  
△김두영(6회) = 3월 27일 작고  
△구덕건(13회) = 3월 21일 작고  
△김영길(13회) = 3월 6일 작고  
△김일수(13회) = 2월 19일 작고  
△박재명(23회) = 3월 12일 작고  
△심현철(23회) = 3월 4일 작고  
△이동길(23회) = 3월 12일 작고  
△류덕열(26회) = 2월 6일 작고  
△송순호(26회) = 3월 18일 작고  
△배중수(30회) = 2월 16일 작고  
△하병관(31회) = 3월 23일 작고

18일(토) 오전 11시 30분 센텀사이언스파크 1층 라움홀에서 결혼. △박철웅= 빙모상. 2월 13일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5호에서 발인.

#### <51회>

△김영태=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여성 청소년 팀장으로 발령.

#### <55회>

△이욱한= 충주 중앙경찰학교 교수 요원으로 인사발령.

#### <기사 34면에서 받음>

김상현 김영곤 김의렬 김준오 김형기 문진형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유호섭 이수환 이호진 장원익 조성각 천웅찬 최기영 탁낙준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 38회(26명)

권두성 김경곤 김문철 김상수 김언규 김원철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오승언 오종현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용철 차성철 한민득

#### 39회(21명)

곽기영 김규웅 김대중 김병기 김경남 김종엽 김천술 남호찬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곤 오선호 윤동배 윤원욱 이상학 이준영 경순환 정진해 천용준 하순호

#### 40회(19명)

강창지 권귀동 김근영 김춘강 나수민 문형욱 박준재 배병훈 서경민 안경진 우영환 이강욱 이 기 이병안 이상백 이정삼 임태영 장명재 한수열

#### 41회(22명)

강 훈 김동원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인수B 박상환 박정의 백창봉 성찬기 안광근 이경호 이양걸 임병호 장윤호 정필상 최영준 한정호 한창희 허중윤 황정후

#### 42회(9명)

강인호 김광철 김동수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신동복 신봉준 제경환

#### 43회(13명)

강병규 고두병 구명진 김대영 김신현 김종식 김진수 김태형 문영찬 박경곤 서원택 전순표 최용석

#### 44회(9명)

김찬홍 이동렬 이부교 이승철 이창용 임정훈 조영호 최현덕 한수성

#### 45회(7명)

강동호 김진수 나성태 박 웅 박중호 진상영 최재영

#### 46회(4명) 구경민 김동희 오영훈 이동수

#### 47회(9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영진 이승택 정민호 정 신 최경훈

#### 48회(7명)

권유찬 권태현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차원일

#### 49회(4명) 이충현 장민건 정일권 조영철

#### 50회(3명) 김유진 박중현 이승헌

#### 51회(10명)

강승호 구민석 김기호 김영태 박보순 박성주 반길호 신혁후 신현식 유상일

#### 52회(1명) 강영철

#### 53회(8명)

김문건 문희규 박현근 백홍상 송승운 송승준 한동인 황종민

#### 54회(3명) 신경우 엄도용 이재진

#### 55회(2명) 박두근 최익재

#### 56회(6명)

강호성 김대남 오신욱 임동섭 장재환 천두만

#### 58회(1명) 김현운

#### 59회(1명) 김성수

#### 60회(1명) 이명휘

#### 66회(3명) 김덕형 김시준 성범석

#### 67회(3명) 권성민 전명재 황규광

#### 69회(1명) 정민기

#### 79회(1명) 김민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7명

#### 2023년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2023. 3. 27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0	60	29	48%	39	63	21	33%
2	0	0	0%	21	88	47	53%	40	42	19	45%
3	0	0	0%	22	84	50	60%	41	34	22	65%
4	6	3	50%	23	84	38	45%	42	29	9	31%
5	11	4	36%	24	100	63	63%	43	41	13	32%
6	13	7	54%	25	142	73	51%	44	41	9	22%
7	17	10	59%	26	94	42	45%	45	51	7	14%
8	15	6	40%	27	59	28	47%	46	43	4	9%
9	14	5	36%	28	82	51	62%	47	28	9	32%
10	31	17	55%	29	87	47	54%	48	11	7	64%
11	54	28	52%	30	90	53	59%	49	18	4	22%
12	68	36	53%	31	80	47	59%	50	46	3	7%
13	81	46	57%	32	62	28	45%	51	101	10	10%
14	62	33	53%	33	58	32	55%	52	124	1	1%
15	62	36	58%	34	32	16	50%	53	40	8	20%
16	92	45	49%	35	41	16	39%	54	83	3	4%
17	57	33	58%	36	62	32	52%	55	82	2	2%
18	108	42	39%	37	38	20	53%	56	52	6	12%
19	90	45	50%	38	44	26	59%	57이후	34	11	32%
소계		396명		소계		738명		소계		168명	
기수&이름불명		7명		목표인원		4,000명		구독료납부인원		1,309명	
총발송부수		3,1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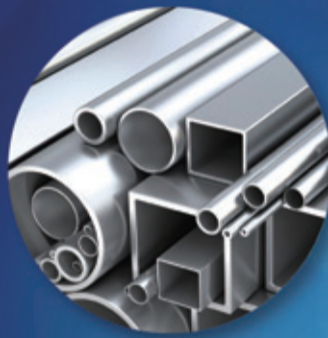
#### 2023년 기별분담금 및 야구후원금

(2023년 3월 27일 현재)

회	기별분담금	야구후원금	회	기별분담금	야구후원금	회	기별분담금	야구후원금	회	기별분담금	야구후원금	회	기별분담금	야구후원금	
19회	50	30	27회	120	80	35회	150	100	43회	120	80	51회	90	50	
20회	50	30	28회	120	80	36회	150	100	44회	120	80	52회	90	50	
21회	50	30	29회	120	80	37회	150	100	45회	120	80	53회	50	20	
22회	90	50	30회	120	80	38회	150	100	46회	120	80	54회	50	20	
23회	90	50	31회	120	80	39회	150	100	47회	120	80	55회	50	20	
24회	90	50	32회	120	80	40회	150	100	48회	120	80	56회	50	20	
25회	120	80	33회	150	100	41회	150	100	49회	90	50	계	총액	4,160	2,640
26회	120	80	34회	150	100	42회	150	100	50회	90	50	납부총액	2,700	1,730	

계좌 안내 ●기별분담금:부산은행 101-2083-2415-02 경남중고총동창회 이종휘 ●야구후원금 : 부산은행 101-2083-2436-02 경남중고총동창회 이종휘

# 특수금속 유통업계 선두기업 (주)제이스메탈이 앞장서겠습니다



고철/스텐/알루미늄/구리/압축/자원순환품



**(주)제이스메탈**

대표이사 **이종휘**  
(경남중·고 총동창회장 32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330번길 53  
TEL. 051)336-2105  
FAX. 051)302-2106  
Mobile. 010-3574-7621  
E-mail. woorc@hanmail.net